

거주자 생활중심으로 본 경기 고양 전통민가 연구

- 폐쇄형 ㄱ자집을 중심으로 -

이 희 봉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키워드 : 전통주거, 고양, 민가, 폐쇄형 ㄱ자집, 현장연구, 문화기술학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주거란 오랜 세월 삶에 따라 형태가 생성되어왔음은 자명하다.¹⁾ 건축학에서 주로 이루어진 주거 형식 위주의 연구에는 거주자 삶과 주거형태의 관계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에 남아있는 비교적 오래된 전통주거를 채집하여 거주자 면담을 통하여 과거 생활을 중심으로 국지 지역 주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대상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경기도 고양시 전통주거를 대상으로 한다. 비교적 오래되고 형태 보존이 양호한 주거와 과거 시대를 살았던 提報者와 (informant) 면담가능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거를 찾아나갔다.³⁾

개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북한산 줄기의 작은 구릉이 산재한 시의 북쪽지역, 즉 대자동, 문봉동, 성석동 지역과 시의 서쪽 끝 한강 하류변의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가좌동, 구산동 지역의 13집이 선정되었다.⁴⁾

대상시기로는 결과적으로 전통생활이 온존하였고 면담 복원 가능한 194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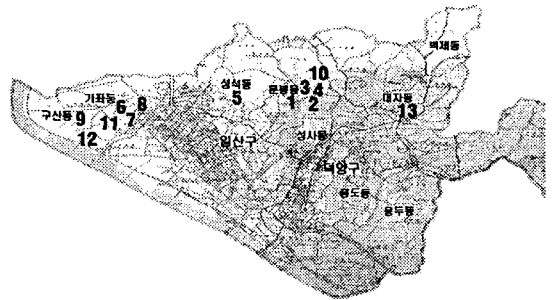


그림 1. 고양시 대상주거 위치도 (숫자는 본문 집번호).

1-3. 방법

“주거+생활”의 연구는 건축학과 인류학 및 민족학과의 접합 부분이다. 건축 물적 형태와 공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세부 생활을 복원하여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⁵⁾

생활복원에는 현재 주거의 관찰과 실측을 기본으로 하여 文化人類學 연원의 文化記述 面談을 행하였다.⁶⁾ 주거 형태를 바탕으로 총체적 문화를 재

이 논문은 2004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수많은 논의가 있으나 Amos Rapoport의 *House Form and Culture*가 대표적 고전이다.

2) Bill Hillier는 일찍이 유형을 다시 정의하여 외형유형 (phenotype)보다 심층유형(genotype)에 관심을 가진다. *The Social Logic of Space*, 12

3) 시 문화원(원장 어한)의 도움으로 고가가 있는 마을 원로들을 소개받아 예비 답사 후 선정하였다. 또한 현대 주생활 변화에 따라 집의 세부 형태 변형이 많이 발생하여 과거 모습을 복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4) 조사시기는 2001-02년. 약간 먼저 시기에 조사 발표된, 경기도 전역의 전통주거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경기도 건축 문화유산’ 조사에서, 본연구의 고양시 가옥 중 1집만 겹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실측과 면담은 총 20집이다.

5) 현장실측조사와 사진 촬영을 통하여 현재의 도면을(평면도) 그리고 나서, 거주자 면담을 통하여 과거의 생활과 물적 형태를 복원하여 도면화 하였다.

6) 면담방식은 넓은데서 시작하여 점차 좁혀나가는 식의 개방

구성하기 위하여, 면담의 주 항목으로서 거주자의 공간에 대한 명칭과 그에 대한 인식, 거주자의 가족 비가족 구성원과 방의·점유(기거 취침), 식품 보관, 부엌 일 등의 일상 가사 생활과 제사 장례 혼인과 같은 비일상 생활, 생계에 중요한 농업생산 수확 작업과 식량 보관, 남녀 班常 등의 유교적 특성, 민간 무속신앙 등을 추출하였다.⁷⁾

집의 형태와 생활의 상호관련을 충실히 서술하고, 뒷부분에서 주제별로 종합하는 논문서술 방식을 취한다.

2. 주거 공간과 생활

2-1. 문봉동 느티나무집

지은지 70년 되는 (집주인의 할아버지가 소화10년(1935) 11월에 지었다고 정확히 증언) 상촌 동네의 전주이씨 종가 집이다. 현 집주인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여기서 지금까지 죽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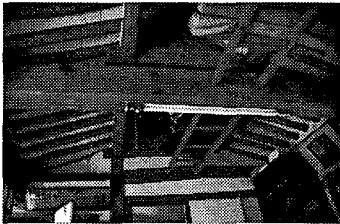


그림 2. 느티나무집 대청상부



그림 3. 느티나무집 대청마루

부엌-안방-대청-건너방의 ㄱ자 안채와 사랑방-대문간-외양간-광으로 이루어지는 ㄴ자형의 문간채가 어우러져 폐쇄된 안마당을 형성하고, 뒤란 쪽에 광채가 있는 비교적 부농 주거이다.

당시 벽체면 일대에 “한옥집”(기와집의 표현)이 몇 집 안 될 정도로 귀했다고 한다. 서울서 잘사는 사람들의 묘지기집은 기와집이 간혹 있었다고 한다. 부유정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무 장사로 자수성가하신 할아버지가 지으셨다. 벽체에서 아마 제일 추수를 많이 했을 거다. 한 천 석 가가

형 심층질문을 한 후, 분석을 통하여 점차 중요하게 떠오르는 부분에 관해 집중적으로 선별질문을 하였다. James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1979와 *Ethnographic Interview*. 1980 면담의 내용은 ‘말 그대로 원칙’에 따라 최소 편집을 하였다.

7) 질문의 항목을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 과정에 의하여 연구 중반에 중요 사항을 추출한 것이다. James Spradley의 물건과 사람들의 행태, 사고와 연관시켜보는 행렬표식 방법이 유용하다.

이 했다. 밭은 별로 없고 거의 논이다. 이 동네가 거의 이 집 땅이었고, 광탄 파주에도 있고 원당, 일산, 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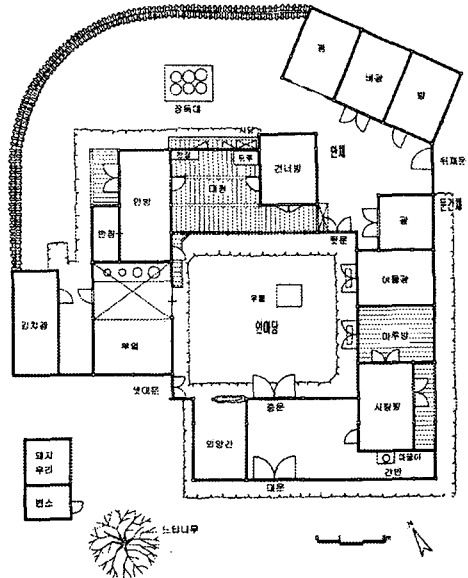


그림 4. 느티나무집 평면

리, 식사동에도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삼자루를 놓지 않고, 70세까지도 쟁기질을 하셨다. 아주 부자들은 지역적으로 사람 뒤서 소작을 하는데, 이 집은 많지 않으니 할아버지가 자작하고 먼 곳은 소작을 했다.”

집의 모든 공간은 농사와 직접 연관되어있다.

“수확철이 되면 할아버지가 바쁘셨다. 먼곳, 이를테면 일산쪽에선 벼를 찿어서 장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오기도 하고, 타작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벼 채로 가져오기도 했다. 가마니 속에 넣어진 벼를 대문앞 마당에 “벗가리”로 야적을 했다. 가마니를 싸 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꼭대기는 비맞지 않게 이영으로, 벗짚으로 둘러 싸웠다. 높이는 8-9m 되고 길이는 15m까지도 되었다. 바닥에는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바닥에서 한자 높이에 괴목이라구 원목을 죽 깔고 그 위에 다 벗짚을 또 깔고 쌓아 올렸다. 거기 쌓지 않으면, 동네 방앗간에 가서 찿었다. 저 아래 고봉동사무소에서 300m 떨어진 데 있었는데 실어다 계속 찿구 잠깐 들어와서 있다가 또 나가면 찿구 했다.”

수확한 벼를 현지에서 바로 매매, 현금화하기도 하지만, 벼를 대문앞 마당 공간에 “벗가리”로 쌓아 보관하였다. 줄기 벼에서 탈곡하는 과정을 보자.

“먼저 나무 절구를 높여 놓고 벗단으로 태를 쳐서 5분지 4정도 떨어지면, 다음 훑치개라 해서 그걸로 했고 다음에는 쳇가리나 회초리로 떨어뜨리고 말려서 북대기로 했다. 도리개는 발곡식 같은 것, 녹두 콩 같은 것을 도리개로 사용해 털었다. 뒷광채가 벼광인데 거기다 넣었다. 가마니가 귀한 때니까 짚으로 엮어서 두 가마 정도 들어가는 것을 섬이라 해서 7·80섬 짝 채워넣었다. 꺼낼 때는 위에서부터 꺼낸다. 집안에 디딜방아 같은 것은 없었다.”

탈곡 작업은 대문앞 마당, 보관은 광채에 했다. 벼를 집에서 직접 현미쌀로 가공하여 팔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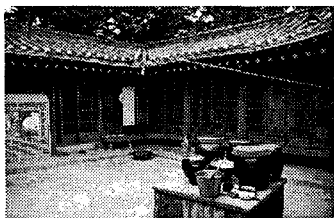


그림 5. 느티나무집 안마당

“일본인들이 여기서 쌀은 많이 사가지러 왔는데, 조미장사라 해서 꺼플만까지 현미를 만들어 팔았다. 그때 농촌에서는 다른 부업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부업으로 하다가 되겠다. 매통이라는 나무통이(일명 매조미통) 있어가지고, 뒤에 독만한 것이 있는데,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거기다 이빨을 내고 위에다 구멍을 뚫어 거기다 벼를 집어넣는 거다.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를 만들어 양 쪽에서 북북 돌리면 현미가 되어 자꾸 내려온다.”

방은 안방, 거른방, 사랑방 3개이고, 현재 뒷광채에 머슴방이 하나 더 있었다. 각방 공간에서의 생활은 다음과 같다.

“안방은 할아버지 내외가 사용했다. 거른방은 아버지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아들인 내가 사용했다. 그때 아버지가 서울로 안 가시고 3대가 함께 살았으면 그 방을 또 어떻게 썼을지 모른다.

사랑채의 사랑방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바깥사람들이 대문을 거치지 않고 뒤에서 드나들 수 있게 반칸 들어가서 칸반 툇마루가 있었다. 아랫목 쪽에 대문간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가 자지는 않고 남자손님이 자고가기도 했다. 주로 낮에 면직원, 지서 등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접객용으로 썼다. 밤엔 술때우는 사람들 같은 행상들이 자고갔는데 방에는 안들어오고 툇마루에서 하루 쉬어갔다.

사랑방 옆의 마루방 문을 트면 사랑방 마루방이 한통이 되는데, 큰일 때, 즉 음식준비할 때 잔치준비할 때 거기서 했다. 대문에서 들어와서 아궁이가 있었고 사랑채 위로는 벽장이고 킴했다.

뒷광채에도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묵었다. 나한테 대부벌 되는데 머슴으로 와서 장가들은 머슴부부가 한 7~8년 살았다.”

현재 외부로 여겨지는 대문 밖 마당공간은, 터밭과 함께 큰 느티나무 밑에 돼지우리라 변소가 있었고 소를 매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벼를 쌓아 보관하는 私的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은 대문, 중문으로 폐쇄되었지만, 사랑방은 집밖을 향해 열려있었다.

식사는 안방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겸상을 했고, 손님이 왔을 때 앞 쪽 사랑채로 상을 날라다 먹었다고 한다. 식솔이 많았고, 식사준비활동이 다양하므로 부엌공간이 큰 것은 당연하다.

“부엌에는 솔이 네 개가 걸렸었다. 가마솥하고 옆에는

밥솥하고 국솥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상시 별로 안 썼는데 조그만 양은솔이 있었다. 제일 큰 게 가마솔이고 밥솥이 크고 국솥은 반 크기로 작다. 밥솥은 농번기 때 일할 때 일꾼들 한 끼 40명분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크기였다. 가마솔으로는 물도 끓이고 매주도 쭈고 엷도 고고했다. 겨울에 선달 그믐에서 정월명절에 제사지낸 과일 아니면 두부, 유일하게 먹는게 엷이었다. 소죽은 건너방 추녀밑에서 끓였다.”

조상상배와 상징적 위엄과 양식보관의 실질적인 집 중심이 되는, 대청마루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대청마루 한 쪽에는 옛날에는 찬장을 두고 식기, 도자기 같은 그릇을 두었다. 다른 한쪽에는 뒤주를 두었는데 두 가마가 들어간다.

대청마루 한 쪽 뒤에 사당을 (벽감식) 모시고 제사지낸다.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 4대의 위패를 모셨다. 성주라고 해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부갓집 집안에 제일 중추역할을 하는 대들보에다가 베를 위로 걸쳐서 양쪽으로 내려오게 걸어놓았다. 보가 크면 부갓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 대들보는 마포서 땃목으로 들어왔다.”

대청마루를 내부공간화 하는 유리문은 원래 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상례를 보면,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시 상청을 대청마루에 차렸다. 시신을 방에 모시고 마루에서 제사지냈다.

“7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5일장 모실 때 4일째 할머니까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8일장이 됐다. 할아버지 먼저 모셔놓고 두 분을 합장해서 올렸다. 3년상을 했다.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상시 쟈상을 올리고 대청마루에 상청을 모셨다. 아침저녁으로 상식올리고 밥은 우리가 먹고, 보름날은 삭망날이라해서 그날은 친척들도 오셔서 간단하게 차리고 제사지냈다.”

뒤란에 민간신앙으로서 집터를 지키는 지신인 터줏가리를 두었다.

“짚으로 짚단을 엮어서 겨울에 나무 얼어죽지 말라고 엮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 아래 단지는 없었고 할머니가 떡 놓고 고사지냈다.”

집주인은 민간신앙을 실용적으로 해석한다. “그 당시 살기 어려울 때라 비상식량으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벼도 담아 넣는 곳도 있고 쌀도 담아 넣는 곳도 있다. 벼 한가마씩 저쪽 광에 지금도 있다. 그 쌀은 퍼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집 식구끼리 먹는 거였다. 아무리누가 와서 급하다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요새 말로하면 비상식량인데 하나의 신으로도 모셨다. 쌀이 있고 그 위에 갓주머니 같은 대감 병거지라고 대감위에 모셔놓는 대감독에다 쌀을 모셔놓았다. 그 위에다가는 대감쓰는 병거지 있잖습니까 짚 같은데 담아서 메달아

놓았다. 춘궁기에 가서 누구든지 주지말고, 집안끼리 먹으라는 거다. 하나의 미신보다도 실용성이 있다. 산 기둥이라 해서 기둥에도 버를 걸어놓았다.”

결혼식을 신부집에 가서 했다. 경기도 풍습은 여자 쪽에서만 잔치를 하므로 여기에서는 행사가 없었다고 한다.

이 집의 외부와 내부공간을 구획 짓는 대문을 보면, 먼저 대문간에 대문과 중문이 이중으로 있고, 부엌 옆에 밖에서 안마당으로 통하는 셋대문이 있고 안마당에서 뒤란으로 나가는 뒷문이 있다. 또 뒷광채로 직접 출입하는 뒷채문이 있다.

“해가 지면 대문을 닫고 저녁에 셋대문을 이용했다. 해가 지면 허전하니까 조그만 문으로 다녔다. 또 부엌에 가까우니까 여자들이 주로 드나들었다. 소는 주로 셋대문으로 많이 드나들었다. 소 매는테가 지금 단풍나무 있는 데라서.

소가 옛날에는 한마리 팔면 땅을 사고 큰일 치루고 하는 재산목록 1호였다. 이 부락에도 소가 한두마리 정도 있지 소가 비싸서 아무나 못 샀다. 소 하나 나가면 사람 다섯 몫 일을 했다.

대문간 옆은 외양간이었다. 벽은 밖에서 나무로 하면 보기 싫으니까 돌로 쌓고 안에는 박송을 대었다. 지금은 벽돌로 쌓았지만 전에는 화장담으로 다 했었다. 사랑채 여물광에는 주로 작두가 있고 농기구도 두었다.

안마당은 원래 흙바닥이었다. 지금은 시멘트이나 원래는 흙 마당이라 비가 오면 질어서 납작한 돌을 깔아놓고 던고 다녔다. 안마당에는 남들은 깨뜨려 버렸는데 우물을 보존했다. 노인네들이 퓌프질하기에 불편해서 그냥 걷는 우물로 놔두었다. 장독은 대청 뒤 뒤란에 있다. 부엌에서는 조금 뒤로 돌아서 가게 된다. 부엌 앞에는 느티나무 아래 찬광을 두었다. 거기다 김치나 깍두기 담궈 두었고 지금은 그대로 다시 지었다.”

대문, 중문은 폐쇄된 안마당으로 상징적인 진입을 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셋대문으로 많이 출입하고, 뒤쪽의 별채는 별도의 뒷채문으로 출입했다. 뒤란은 완전 폐쇄된 공간이다.

근래에 들어 집의 개조가 일어난다.

“5.16나고 새마을 사업에 지붕 개량한다 해서 그때 했다. 근래 그 기와가 좋지 않아서 작년에 다시 고쳤다. 행랑을 먼저 했고 안채를 그 후에 했다.”

목조 한옥집이라는 자부심을 높이 가지고 있었다. 목재 나무에서 송진이 아직까지 나오니 살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다.

이 집의 사랑채는 유교적 남성공간이라기 보다는 할아버지의 손님 접대공간이었다. 남자 주인도 안방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아 전통 유교 관습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다.

2-2. 문봉동 김병선씨 집

지은 지 100년 이상 되는 집이다.⁸⁾ 부엌-안방-대청-거튼방의 ㄱ자 정남향의 안채와 광-외양간-대문-사랑방의 ㄴ자형의 문간채 및 사랑채가 동서방향으로 길게 마당을 형성한다. 부엌 뒷마당에 부속채인 광채가 있다. 체법 튼튼한 목재를 사용한 기와집인데, 나무기둥을 대패없이 자귀로 다듬은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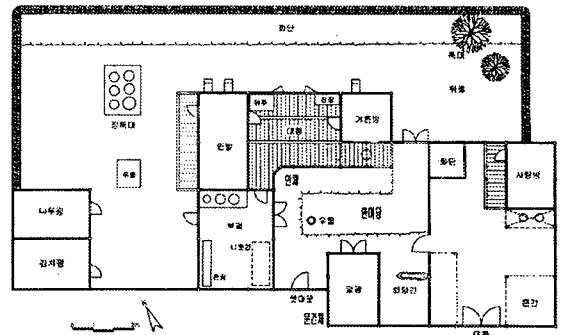


그림 6. 김병선씨 집 평면

이 집은 동네에 10여 집 있는 전주 김씨 종손집이다.⁹⁾ 논이 4,50마지기, 만여평정도 아랫마을에 있었고 윗마을에 밭이 조금 있었다고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하는, 지금은 흔적만 남은 널 '빈지담'이다. 내외담 성격으로서 긴 마당을 안마당과 문간마당을 구분한다. 현재는 흔적만 있다. 안채가 들여다보이면 안된다고 해서 원래 머리가 안보일 정도의 높이로 막혀 있었고 거기에 중문이 나 있었다.

빈지담은 나중에, 안주인이 65년 시집은 지 5년 후에 (1969~70년쯤) 갑갑하니까 뜯어버렸다고 한다. 그 이유로 “그전에 나무를 해서 지계를 지고 대문으로 들어와 다시 작은 문 열고 들어오고 해서 불편해서였고, 또 사랑방으로 진지상이 나갈 때 힘이 드니까”하고 했다.

마당과 대문의 연결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안마당에서 뒤란문으로 해서 뒤뜰로 나간다. 뒤뜰에는 감나무도 있고 뒤가 높아 축대 위 화단에 함박꽃, 난초를 심어 가꾸었다. 남자들은 대문간으로 출입했지만 밖에서 여자가 안마당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셋대문

8) 정확하게 109년, 현 주인의 할아버지가 2살 때 지은 것으로 짐작한다.

9) 이 동네에 12집 있는 전주 김씨로부터 분파한 전주김씨 10대 종손집이다. 입향조는 250년전 인조조라고 한다.

이 있다.(지금은 두쪽문이나 예전에는 1쪽문). 부엌에서 나가면 우물이 있었고 뒤란 쪽으로 큰 장독대가 있었다.

대문 밖은 지금은 4차선 대로이나, 예전에는 작은 길 건너까지가 집의 영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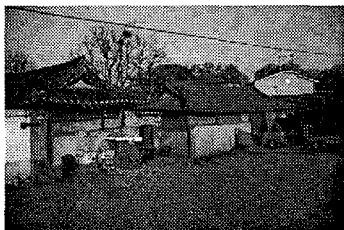


그림 7. 김병선씨 집 입구외관

“예전에는 문봉 고개를 넘는 마차길 밖에 없었고 길을 두 번 넓혔는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5년전 완공] 2차선 길이었다. 길 보도블럭까지가 예전에는 바깥마당이었다. 지금은 길이 마당보다 높으나 예전에는 같은 높이였다. 새 길을 내면서 집전체가 길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1m정도]. 현재의 넓은 길은 (과거) 80평정도 되는 이 집 텃밭이었다. 길 건너에 변소도 있었고 돼지도 키웠다. 길이 생기고 광채옆 담쪽으로 옮겼었다.”

안주인이 시집왔을 때 14명 식구이었다고 한다. 식구수에 비해 방수가 적다. 안방에서 시아버지 부부와 시누이들 해서 7식구가 함께 자고 거른방에서 부부가 생활했고 사랑방에서 시할아버지가 혼자 주무셨다고 한다. (시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림 8. 김병선씨 집 안마당 (과거 한가운데 빈지담으로 막혀있었음)

“죽 3대가 같이 살았다. 식사는 모두 안방에서, 할아버지 아버님 현 주인 3명만 아랫목에서 겸상을 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옷목에서 동그런 큰상 하나 놓고 둘러앉아 먹었다. 여름엔 마루에서도 식사를 했다. 부엌이 커서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계실 때 진지 잡술 때는 안방으로 오시고 친구들 오시면 며느리가 상을 내갔다.”

사랑채는 문봉리 전체 노인정 역할을 할만큼 동네 노인들이 많이 모였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동치미를 바가지로 퍼다 나를 정도로, 시어머니가 식사 뒷바라지를 다 했다고 한다.

부속 저장공간으로 앞광과 뒷광이 있다. 안마당 면한 앞광은 곡식저장고였다. 사람 들어가도 안보일 만큼 큰, 쌀을 쫓어다가 부었다는 두 가마들이 쌀독이 있었다. 또 두가마 이상 들어가는 뒤주가 두 개 있었다. 또 팔, 콩, 등 잡곡항아리도 여러 개 있었다. 부엌마당의 뒷광에는 김치광과 나뭇광이 각 한 칸씩 있었다.

대청마루는 안방에서 큰 세살문으로 출입했다. 대청은 두 칸에 앞퇴도 있고 집 규모에 비해 넓적이다. 한 칸, 거른방 쪽에 위패를 모셨고 또 찬장을 두었었고 다른 한 칸, 안방 쪽엔 뒤주를 두었다. 뒤주위에는 조정항아리등 여러 항아리가 있었다고 한다.

대청마루는 결혼 갔다와서 조상위패에 사위가 인사하고, 또 새로운 며느리도 맞이하는 공간이다.

“결혼식은 부짓집 만아들이라 신식으로 했다. 과거에서 아침에 결혼식하고 오후에 집에 와서 족두리쓰고 구식으로 다시 했다. 대청마루에서 폐백을 들었다. 피로연은 마당 가득 방방마다에서 했다.”

소는 농사에 제일 중요하였다.

“소죽은 거른방 앞 높은 텃마루 밑에서 끓여서 외양간의 소 여물통 ‘켁’으로 날랐다.”

농사를 수확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타작은 바깥마당에서 다 했다. 절구를 눕혀 놓고 벼를 묶어서 털어내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털어낸다. 그전에는 훌치기라해서 훌어냈다. 대문간 옆 한 칸에 벼를 보관했다. 관자틀로 아래서부터 하나씩 끼우면서 위에다 붓고 많을 때는 키높이 이상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되었다. 벼를 쌀로 만드는 것은 “매지미틀”을 잡고 돌려서 집에서 수작업으로 벼를 현미로 만들었다. 반은 가까지고 나오고 반은 그냥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은 까불러서 다시 절구에 찼었다.”

안마당에서의 주 생활은 다음과 같다.

“안마당에서 떡을 했다. 몇 말씩 했는데 안반에 치는 떡메가 두 개나 있었다. 우물은 안마당쪽 부엌 앞에도 있어서(현재는 수도꼭지) 그릇을 씻어서 거른방 텃마루 앞에 놓기도 하였다.”

집은 중농이상 규모의 여유로운 생활과, 사랑마당이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내외구분의 양반 종가집으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별도의 광채를 증축하고 부엌을 현대식으로 한 것과 보일러 난방을 하는 외에는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2-3. 문봉동 이병태씨 집

6·25사변 나고 지은 집으로 한 50년 정도 되었다고 79세의 집주인인 할머니가 전한다. 부엌-안방-대청-거른방의 ㄱ자 안채와 벼광-외양간-대문-문간-사랑방-마루방의 ㄴ자형의 문간채(사랑채)가 어우러져 꽤 큰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뒷광과 허수간이 별도의 폐쇄된 뒷마당을 형성한다.

특징적인 것으로, 거른방의 아궁이에 안방 부엌만 한 별도로 '거른부엌'이 있다.

지금은 아들 넷과 딸을 모두 분가시키고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는 17살에 맡며느리로 시집오셨는데, 당시 이 집에는 시부모님과 3명의 시동생과 2명의 시누이가 살고 있었다. 방은 안방, 거른방, 사랑방 크게 3개이고 사랑방 옆에 마루방이 하나 더 있다. 당시 각방에서 다음과 같이 생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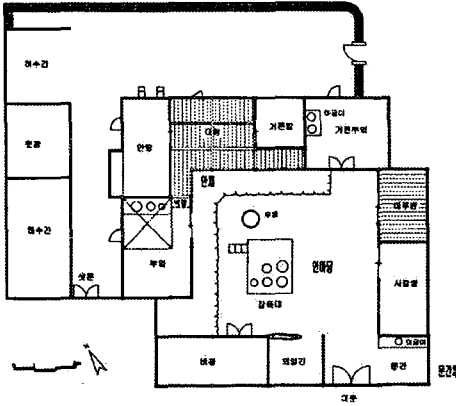


그림 9. 이병태씨 집 평면

“안방은 아버님 어머니가 계셨고, 거른방은 우리 두 내외가 썼고, 사랑방은 시동생 혼자 잤다. 시누이들과 어린 시동생 두 명은 어머니가 안방에 데리고 계셨다.”

식구들이 많아 문간채의 마루방도 썼을 것 같은데 빈방으로 내버려뒀다고 한다. 지금 안방은, 같이는 안 살아도 자주 오는 큰아들 내외가 오면 묵고 가라고 비워두고, 할머니는 거른방에서 지낸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안방교체가 이루어졌다. 할머니 내외가 안방으로 가고, 시부모님이 거른방으로 나오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바꿨냐하면 노인네들은 노인네들아냐. 손님이 오면 안방으로 오잖아. 그러면 눕고 싶은데도 못 드러누우니까 방을 바꿔다오. 우리는 거른방 한쪽으로 가면 초저녁이 됐던 드러누울 수 있으니까 해서 바꾼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안방으로 모셨지. 누구든지 죽으면 다 안방으로 가는거여. 돌아가실 무렵에는 안방에 모시고 돌아가시고 제사지낼 때까지. 그 다음에 장례치르시고 우리 어머니는 거른방으로 오셨지.”

안방은 죽음을 맞이하는 상징 공간이 된다.

“아버님은 안방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방에 모셨지만,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사랑방으로 모셨다. 밖에서 돌아가신 어른은 객사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채로 못 모셨다.”

사랑방은 시동생이 쓰다가 출가한 후에는 아버

님이 계셨는데, 동네 마을방이었다고 한다.

“잠은 주무시지 않으셨고 낮에 노인네들이 와서 지냈는데 정월이면 떡국도 차려 먹었다. 사랑방에 어르신들이 놀러 오시면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해서 사랑방으로 가져갔는데 부엌이 좁아서 손님이 많을 땐 대청마루에서도 상을 봤다.”



그림 10. 이병태씨 집 안마당 (대문간에서)

안방에서 다 모여 식사했는데, 위계 구분이 있었다.

“상 둘을 따로 봤다. 시부모님은 따로 상을 봐 드리고, 나머지 식구는 둥그런 큰상에 모여 먹었다. 여자들은 옛날에 상자리에도 못가고 오며가며 떠먹고 부엌에 앉아서도 먹었다. 한 여름엔 대청에서 먹기도 했다.”

부엌에는 술이 세 개가 걸렸었다.

“가마술, 가운데 술, 웅술으로 젤 큰술인 가마술은 물 끓이고 가운데 술은 밥하고 작은 술은 국을 끓였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부뚜막 위 술 뒤에 등잔불을 놓아 어두운 부엌을 밝혔다.”

부엌쪽 작은 벽장에는 먹다 남은 떡이나 과일 등 지금의 간식거리를 보관했다고 한다. 이 집의 특징인 별도의 거른방 부엌에는 소죽을 끓였고, 옆에 장작 나무를 쌓아뒀었다.

상식 쌀은 대청마루 한쪽에 쌀 두 가마 들이 뒤주에 저장했는데, 겨울 내 퍼서 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뒤주는 지금도 벼광에 보관하고 있다. 나머지 쌀은 벼광에 보관했었다

뒤결은 부엌의 부속공간으로서 주로 부식물의 수장공간과 더불어 이 집은 간장, 고추장을 담는 일을 했다. 담은 장은 안마당에 있는 장독대에 보관했다.

안마당은 먼지가 나므로 농사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장독대만 있고, “큰일 때 상보는 일”을 했다. 안마당과 연결된, 사랑아궁이 있는 문간에서 절구질도 하고 쌀 찹고 떡도 했다고 한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대청마루에 상청을 해서 3년상을 치렀다고 한다.

맡며느리로 시집와서 제사가 많았다.

“정월 초하루에 9분을 올리는거야. 떡국이 아홉분. 동짓달 초닷셋날, 열사흘날, 정월 초이튿날 우리 영감님 제사, 이월 스무나흘날 우리 시아버님 제사, 8월 열하룻

날 우리 어머님 제사. 제사가 많지. 작은집에서 와서 도와주었다. 여기 대청마루에서 병풍 쳐놓고 지방쓰고 다 했다. 지금은 큰애가 다 모셔갔다. 사당은 느티나무집에 계신다. 설이면 그리로 세배하러 간다.

제사음식은 보통 장독대에 넣어 보관했고 광에도 보관했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우물에 내놓았다. 거의 겨울 제사고 손님들이 많아서 내놓는 것도 남는 것도 없었다. 다른 제사는 집 대청마루에서 지냈는데 8월 추석에만 집에서 차려 산에서 지냈다. 설 제사는 추우니까 집에서 지내고 기제사는 밤에 드리니까 집에서 지냈다. 10월 15일은 문봉동 이씨 집안에서 지내는 시제로 14일 하루동안은 음식을 준비해서 차리고 15일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다.”

결혼은 족두리 쓰고 구식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은 말타고 신부는 4명 드는 가마를 타고 신부집에서 식을 올리고, 여기와서는 부모님께 폐백드리는 절을하고 나면 끝이었다고 한다.

집을 지키기 위해 민간신앙이 중요했다.

“집안이 평안하구 잘되라구 10월에 고사를 지냈는데 날은 내가 좋은날을 봐서 정했다. 보통 돼지날에 했고 문간에서 떡을 해 고사를 지냈다. 집터를 지키는 지신인 터줏가리가 뒤곁에 두 개있었다. 향아리는 없다. 부엌에는 짚으로 만든 작은 어병가리를, 대감은 벼광에, 지식님은 안방구석에 모셔놓았다. 성주라고 해서 대들보에 배를 길게 꿰어와 위로 걸쳐서 양쪽으로 내려오게 걸어 놓았다.”

밭농사도 있었지만 논농사를 주로 했다. 할머니가 시집왔을 당시 여느 집처럼 소작을 했다.

“남의 땅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10가마라면 5가마는 땅주인 주고 5가마를 농사지은 사람이 먹었다. 토지개혁 바람에, 농사 지어가지고 땅값 값으려니까 먹을 것만 남겨놓고 공판으로 다 내 갔다. 그게 빚이고 내 땅을 만들려니까. 땅 값 다 갚고 나서는 많이 들어놓았다 (쌀을). 탈곡기를 사가지고 사람 데리고 돈벌러 다녔기 때문에 많이 쌓았다. 100여가마 넘게 쌓았다.”

농사 수확 작업은 이 집에서는 대문 앞에는 터가 없어 옆에 있는 바깥마당에서 했다.

“옛날엔 논에서 벤 물벼를 그 자리서 말리고, 지게로 다가지고 와서. 절구에 벼를 매달아 놓고 여자들이 헛가지질을 해서 떨고 다음엔 절구에 넣고 찼었다.

이 집은 50년대에 지어서, 처음부터 대청마루 앞에 유리문을 달아 대청의 내부화를 이루고 있다. 후에 고친 것은 거른방 앞 퇴를 없애서 방을 늘린 것뿐이다.

2-4. 문봉동 이병만씨 집

ㄱ자 안채와 ㄴ자 사랑채가 결합하여 안마당을

형성하는 집이다. 안채는 부엌-안방-대청-거른방으로 배열되어있고 사랑채는 문간채나 광채라고 부를 정도로 대문간, 광, 벼광이 있다. 장독대가 있는 뒤란은 담장으로 폐쇄되어 있다. 또 외부에서 대문을 통하지 않고 사랑방으로 직접 진입하게 문이 있었고, 퇴간에 마루는 따로 없었다.

이집은 1930년대에 지었고 사랑채는 6.25때 폭격을 맞아 다시 지었다고 태어나서 죽 살아온 2대인 40세의 현 주인이 전한다.

각 방의 생활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도 어렸을 때에 일찍 돌아가셔서 그 전의 기억이 없다. 어머님, 할머니하고 동생하고 안방에서 살고, 나는 열 한두살까지 건너방에서 삼촌과 같이 있었다. 당시 사랑방에는 농사일 다 맡아 일하는 분이 있었다. 부모님은 건너방에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안방으로 할머니와 합쳤을 것이다. 그 후 농사일을 농기계로 하게되어 일꾼이 나가고 사랑방에 결혼전까지 나와 있다가, 93년 결혼후 안방으로 갔다. 삼촌은 여전히 건너방에 있었다. 어머니는 95년 돌아가실 때 까지 건너방에서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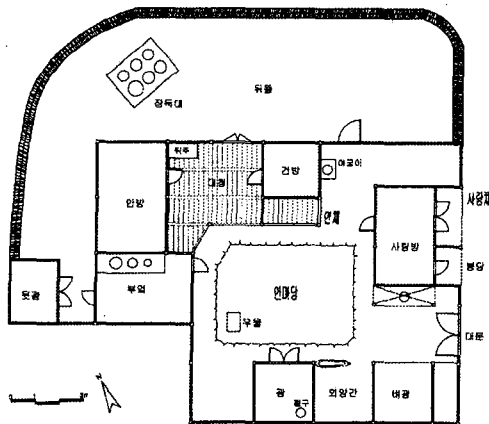


그림 11. 이병만씨 집 평면

사랑방은 남자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원래의 사랑방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집의 규모나 광의 칸수로 보아 중농이상 정도로 보인다. 집주인은 과거 땅이 많았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씩 처분하였다고 한다.

제사는 부모, 조부모의 2대 네분만 모시고 있다.

“제사는 대청마루에서 병풍치고 지금도 옛날식 그대로 한다. 10월에 지내는 시제는 동네 사당에 위패를 모신 느티나무집 종가집에 가서 한다. 옛날 명절에 종가집에서 제사 지내고 또 큰집 가서 또 지내고 막내였던 할아버지까지 다 들렀다가 오면 저녁, 오후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반대들이 많았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종가집에서 분리

를 해서 제사를 지내므로 오전에 끝난다.”

식사는 겸상으로 해서 여름에는 대청에서 하고 겨울에는 안방에서 했다.

벼를 수확한 후 집에서 쌀을 만들었다.

“집에 따로 방아는 없었다. 떡은 어머니 때에 방앗간에서 했는데 집에서 매횄미틀에 넣고 돌려서 겨를 털어 내고 쌀을 만들어 방앗간에 갔다. 찜어가지고 집에 와서 찌기만 했다.”



그림 12. 이병만씨 집 안마당

벼는 벼광에 보관했다.

“벼광에 지금은 문이 있는데, 예전에는 벼를 넣으면서 한 장씩 번호를 1,2,3,4 매긴 나무판을 끼면서 나무를 올렸다. 예전에 대청마루 안방 쪽에 뒤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밖에 광에 내다났다.”

이 집에서는 과거 소를 많이 키웠다.

“뒤뜰에서는 30년전부터 소를 다섯 마리 한 10년 이상 키웠다. 지금도 소우리가 남아있다. 소여물은 사랑방 아궁이에서도 건방 아궁이에서도 끓였는데, 부엌에서는 안 했다.”

집과 연관된 민간신앙을 보면, 뒤뜰에는 옛날에 고사지낼 때, 짚단으로 세워서 만든 것을 장독 뒤쪽에서 보았다는 것을 보아서 선대에는 있었으나 현대에는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변화를 보면, 부엌을 내부 입식화 하고, 건너방 앞 텃마루를 없애 방을 늘이고, 대청에 알루미늄 새시를 하고 출입문을 달았다. 보일러 난방을 놓고, 집밖에서 직접 출입하던 사랑방 앞퇴를 없애고 방으로 늘였다.

2-5. 성석동 정준섭씨 집

진밭 동네에 있는, 77세인 집주인이 태어날때부터 죽 살았다는 집이다. 집주인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집을 사들였다는, 안채가 지은 지 200년 된 것으로 진술하는 오래된 집이다.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의 문간채가 아주 작은 안마당을 형성한다. 부엌-대청-건너방의 안채 규모가 9칸반 대략 14평에 불과하고, 문간-사랑방-외양간-헛간의 문간채 5칸의 9평 도합 23평 되는 규모는 작은 집이다. 대청마루는 2칸에 퇴까지 합쳐 3칸으로 상대

적으로 넓은 편이다. 현재는 셋대문 쪽을 창고로 두 칸 정도 더 늘였다. 안마당은 3.6x7.9m 규모로 양쪽에서 처마가 나오면 하늘이 겨우 보이고 어두운 편이다. 대청 뒤로 내다보이는 뒤란은 부엌에서 장독대로 나가게 되어있고 담장으로 폐쇄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방 사이에 지금은 막아서 창고처럼 쓰는데, 셋대문이 있어 옆집으로 가게되어 있었다. 대문간 옆에 소 외양간이 있는데, “소구인”이라 불렀다. 지형상 길에서 6단 올라가서 대문이 있다.

각 방의 거주생활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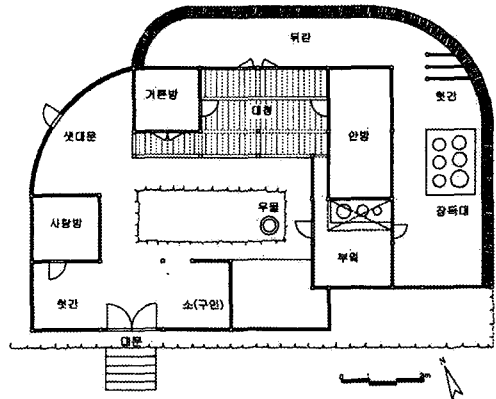


그림 13. 정준섭씨 집 평면

“안방은 부모님이 주무시고 건너방을 동생들이 썼다. 그 후 결혼하고 나서 연로한 아버님이 사랑방으로 혼자 나가시고, 건너방에 부부가 살고 안방에는 어머니와 누이동생과 손자가 썼다. 식사는 다같이 안방에서 했다.”

혹시 할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식사를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아버지 어머니 자식인데 뭐 따로하나? 안방에서 다같이 하지”라고 하고 “어떻게 따로 드시게 하나?”는 말로 보아 식구 모두 다 같이 식사함이 미덕임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사는 것을 남녀구분의 내외법 보다는 “늙으면 따로 자지”라는 말로 보아 나이와 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안마당에 우물이 있다. 50년 전에 파서 후에 펌프로 만들었고, 그 전에는 물이 귀해서 논 가운데 샘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부엌은 지금은 보일러를 놓고 입식으로 개조했지만, 예전에는 한쪽에 나뭇단을 쌓아두고 아궁이에서 소밥도 끓이고 사람밥도 끓였다고 한다.

이 집은 현재는 슬레이트집이지만 과거 초가집이었다. 당시는 기와집이 동네에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짚으로 이엉을 엮어 3일 작업해서 올리는 일이었데, 3년쯤되어 또 갈아주어야 한다. 새마을 운동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비만 오면 썩고 해서 빛도 얻어서 슬레이트 기와로 고쳤다.”

현대에 들어 외부를 불력벽으로 하고 보일러로 개조했다.

“20년전쯤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나무도 안좋고 해서 블록으로 빙 둘러 벽을 쌓았다. 연기에 집안이 꺼매져서 보일러로 놓았다. 솔나무를 따다가 지피면 연기가 무척 많이 나서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겨울에는 미리 나무를 해다가 나뭇가리에, 화장실 뒤에 두었다.”

농사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옛날에는 땅 천평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그 시절에는 땅이 없어서 전부 남의 땅으로 소작을 했는데, 해방직후 토지개혁이 되어서 밭이 한 5백평 되고 논으로 치면 한 천평되었다.”



그림 14. 정준섭씨 집 안마당

현재 개조한 부분을 보면, 세를 주느라고 헛간을 막아 방을 늘였고, 안방을 기둥 뒤로 퇴만큼 늘이고 건너방도 뒷마루를 없애고 방을 넓혔다.

2-6. 가좌동 이경식씨 집

ㄱ자 안채와 ㄴ자 사랑채로 자그마한 안마당을 형성하는 집이다. 방 두칸에 대청-부엌의 최소규모의 안채와, 사랑채는 대문간을 포함 사랑방, 외양간, 닭장, 광이 있다. 안채는 집주인의(67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지금 나이로 129세) 지었다는 100년쯤 되었는데, 거의 변형되지 않았다. 행랑채는 40여년전에 지었다고 한다. 일산에 진시된 밤가시 초가와 거의 같은 형태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장독대와 우물이 있는 뒤란은 담으로 폐쇄되어있고, 집 앞은 길과 텃밭이 있다.

집주인은 8남매중 맏이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전부가 이 집에서 결혼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안채 방 둘만 가지고 다 살다가, 추후 사랑채를 지어 사용했다.

“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동생들과 안방과 건너방에 서로서로 잤다. 결혼하고서는 [우리]부부가 건너방을 썼다. 안방에는 어머니가 여동생들과 막내 남동생과 썼고 바로 밑의 남동생들은 사랑방으로 잤다. 그 무렵 행랑채

를 지어서 사랑방을 만들었고 늙으셨을 만큼 늙으셨으니까 아버님은 늘 사랑방에서 주무셨다. 어머니가 자식 결혼시켜놓고 1년 있다가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건너방에서 1년 살다가 안방으로 바로 왔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사랑방은 동생들이 썼다.”

대청은 지금은 마루지만 예전에는 그냥 흙바닥이었는데 봉당이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마루가 없었고 나중에 놓은거다. 47년쯤 해방되고 마루를 놓았으니까 한 50년 되었다. 옛날에는 흙으로 쌓아가지고 지은 담집들도 마루가 없는 집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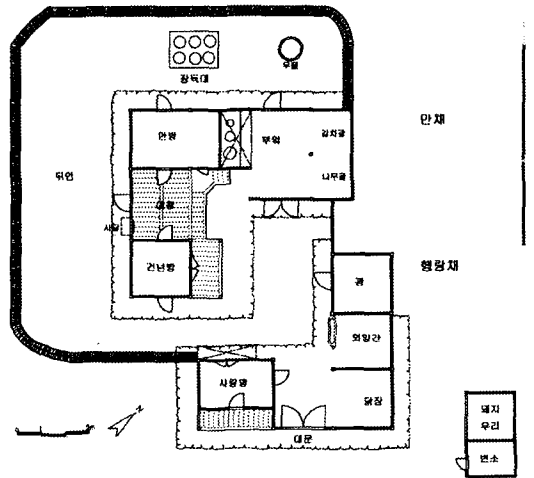


그림 15. 이경식씨 집 평면

건너방 앞에 뒷마루만 있으면 일산 민속전시관의 밤가시초가와 똑같은 모양이다. 뒷마루 놓았던 기둥이 있어 물어본즉, 예전에 대청보다 높은 좁은 뒷마루가 있었는데 아궁이 때문에 떼어버렸다고 한다.

소규모 집에 비해 부엌은 넓다. 나뭇광과 김치광이 포함되어있다.



그림 16. 이경식씨 집 문간채

“안방쪽에 아궁이가 있고 그 위가 다락이며 아궁이 반대쪽으로 기둥은 있되 칸막이는 없는 나뭇광 한칸과 김치광 한칸이 있었다. 뒤란의 장독대와 우물로 나가는 부엌문이 있었다. 부뚜막술은 3개가 있었는데 제일 큰술이 가마술인데 물 끓일때 쓰고, 중술하고 작은 술으로 밥끓이고 국끓여 먹었다. 소를 많이 안키우고 한두번 키우다 말았다. 소죽은 안부엌 가마솥에서 끓였다. 보통 물도 끓여 쓰고 소죽도 끓여 쓰고 했다.”

농사짓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밭농사도 했지만 벼농사를 많이 했다. 논밭은 많을적에는 20마지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다 팔고 없다. 추수할 때 보관은 옛날에는 광이 없었으니까 마루에도 쌓고 의지간에도 쌓고 했다. 행랑 짓기 전 ㄴ자 형태로 의지간이 있었는데 벼도 넣고 기구들이니 뉘니 잠동사니들을



그림 17. 이경식씨 집 대청 뒤 돌출한 사당

넣었다. 한 데에 둘 수 없으니까. 벼는 가마니에도 넣었지만 옛날에는 “통가리”라 해서 이영을 엮어 빙 둘러서 거기다 놓고 자꾸 이영을 올려 그래가지고 새끼로 칭칭 감아 흘러내리지 않게 했다. 의지간에 통가리를 놓아 뒀다. 의지간 위로 쥐가 안 들어가게 지붕을 덮었다. 통가리는 거기다가두 하고 밖에두 했다. 밖에다 해도 누가 훔쳐가는 건 없었다. 다 마을사람들인데 우리뿐 아니라 예전엔 다 그랬으니까.”

통가리의 크기는 농사수확 하기에 달렸는데 수확의 정도에 따라 만들었다.

“일부는 쪼어먹고 남은 것을 봄에 먹을 것으로 보관하는 거니까 따로 규격이 없었다. 지름이 2m 더 되고, 많으면 높이가 사람키 정도되었다.”

‘마당’이라 부르는 집 외부의 바깥마당은 농작물 보관, 추수를 하는 곳이었으며, 텃밭이 있었다.

“행랑을 짓기 전에는 대문이 지금 안마당 가운데 있어서 지금보다 마당이 넓었고 채소도 심고 밭을 해먹었다. 마당은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곳이다. 마당에서 밭고 낫가리 쌓았다. 옛날에는 낫가리 많은 집이 부자집이었다. 벼를 있는 그대로 베어다 논바닥에서 말려서 묶어서 갖다가 쌓았다가 한가할 때 털고 했다. 탈곡을 하는 거다. 옛날에 등그렇게 돌아가는 밭틀로 했다. . . 벼를 바로 정미소로 가져가서 쌀로 만들었다.”

일상 먹을 쌀은 마루의 독에 보관했다.

“[뒤주] 그 옛날에 있었는데 버린 것 같은데 탄 데서는 보았어도 이 집에서는 못 보았다고 한다. 대신 큰 독을 건넌방쪽 마루 구석에 놓았었는데, 방아쥘어서 쌀을 넣곤 했다고 한다. 쌀두가마짜리 큰독이 지금도 광에 가면 남아 있다.”

대청마루 건넌방 쪽 한쪽 구석에 밖으로 불룩 나간 나무통이 있다. 지금은 텅 비어있지만 ‘사당’이라 부른다. 다소 복잡하나 중요한 제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사는 마루에서 지낸다. 뒤에 병풍을 치고 앞에 진설을 한다. 예전에 아버님이 그 위 5대조 할아버지를 모

시고 다음 4대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옛날부터 모신게 내려왔으나 세상이 개화가 되니까 바로 위만 모시고 그 위로는 안 모셨다. 제일 윗 할아버지 모셨던 위패를 산소에 묻고, ‘매인들이다’고 하는데, 가을에 시향을 들인다. 1년에 한번씩 산에서 10월달에 한번 날잡아 제사지내는 거다. 집안이 이 산 넘어 많고, 옷대조 모신 사당이 따로 있다. 할아버지때 까지만 사당 안에서 위패를 꺼내는 걸 하셨고 그 이후엔 개화가 돼서 안하셨다. 어렸을 때 옷대조니까 명절 때 세배도 하고 위패모실 때 제삿날 모셔놓고 기제사를 지냈다. 원래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는데 정부에서 할아버지까지만 지내라해서 할아버지까지만 지낸다. 그런데 지금도 고조까지 지내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기제사가 할아버지까지만 하나까 네번상이 된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명절 차례는 고조까지 다 드리지 5대조는 시향으로 모신다. 시향은 이 일대에 집안이 옷대에서부터 무척 많다.”

안방의 가구는, “옛날 장농하고 반다지라고 색종이 그림 붙인 아래위 두짝 있었는데 한쪽 벽이 짝 찢는데 지금은 다 버렸다”고 한다.

식사한 공간은, “집집마다 마다 틀린데 어렸을 적부터 안방 한군데서 식사를 했다”고 하며, “가끔 손님이 오셨을때 사랑방으로 아버님한테 밥을 해서 사랑방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외부에서 대문을 거치지 않고 사랑방으로 바로 들어오는 방식이 이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옛날에는 외부사람들을 직접 안으로 안들이고 직접 행랑으로 모셨으니까” 집구조가 옛날부터 그대로라고 한다.

“옛날에는 노인네가 되면 사랑에 앉아 친구들이 오면 장기를 두고 소일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 남의 집들을 잘 안간다.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사랑방이 옛날식으로 노인정이나 마찬가지로 ‘마을방’이다. 사랑없는 집도 있었고 유난히 어느집 마을방이 많이 모이는데가 있었는데 우리집엔 많이 안 모였고 아버님이 탄대로 가셨다. 여자 손님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2-7 가좌동 이영배씨 집

꽤 넓은 안마당을 가진 ㄱ자 안채와 ㄴ자 사랑채를 갖는 집이다. 상량 목서가 있는 1930년대 정도로 추정되는 지은 지 60년정도 되는 집이다.¹⁰⁾ 안채의 대청마루의 대들보가 굵고 서까래 위에 부연까지 나간 겹쳐마인 것으로 보아 부농의 집으로 보인다. 안대청 앞의 유리문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한다. 대문밖 마당과 텃밭이 있고 안채 뒤로 담장이 뒤란을 둘러싸고 있다. 거기에 장독대가 있고

10) 「경기도 건축문화유산」의 민가조사와 유일하게 겹치는 집이다. 1권 150-51. 물론 불적 특성만 수록되어 있다.

부엌 뒷문으로 나가게 되어있다. 대문옆 사랑방은 대문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뒷마루가 열려 있다.



그림 18. 이영배씨 집 외관

72세인 소유주는 지금은 여기 살지 않고 세를 주고 다른데 산다. 원래 이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이 집을 어렸을 때 사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 집 지은 사람은 사방 내 땅만 밟고 다닌 부자라고 했다. 옛날에 아주 잘 지었는지 나무 하나 간 것 없이 다 그대로라고 했다. 사랑방, 안방, 건너방, 뜰아랫방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조실부모하고 외아들이어서 1남8녀의 자식들을 키웠다. 집주인은 사랑방을 쓰지는 않고, 안방을 썼다. 사랑방은 비워두고 마을방으로 썼다. 친구들이 겨울에 날마다 따뜻해서 한 방 썩[가득] 놀다가고 했다.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와서 밤새도록 있다가고 했다. 때로는 남을 세 줘서 쓰기도 했다.

아들은 안방에서 같이 데리고 있었고 딸들은 건너방과 뜰아랫방을 쓰고 안방에서도 있었다.

전에는 뜰아랫방에 뒷마루가 있었는데 방을 늘린다고 없었다. 건너방 앞에도 마루랑 통하는 반칸 뒷마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을 늘린다고 없었다. 사랑방은 지금도 바깥에서 바로 들어가는



그림 19. 이영배씨 집 안마당 안채

뒷마루가 그대로 있다. 마루에서는 여름에 다같이 밥을 먹었고 겨울에는 안방에서 먹었다. 제사는 대청마루 가운데에서 병풍치고 지냈다.”

중요했던 농사 공간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농사가 주고 한 3200평 정도된다. 옛날엔 추수해가지고 마당에서 쌓아놓고 작업을 다 했다. 곡식은 벧광에다 넣었다. 곡식은 가마에도 넣고 뒤횥에도 넣었다. 대청마루에 뒤횥을 넣어두지는 않고 부엌에 두었다. 건너방 아궁이 있는곳에 함석지붕으로 된 허수간이 있는데 소죽은 거기서 끓였다. 허수간에는 농기구 같은 것을 두었다. 대문 옆의 광에는 빈그릇들을 넣어두었다. 예전에 대문밖에 이집에 딸린 부속집이 6칸 있었다.”

현재는 건너방과 뜰아랫방 안방을 반칸씩 퇴만 큼 늘인 것 외에 부엌 바닥을 높이고 입식으로 개조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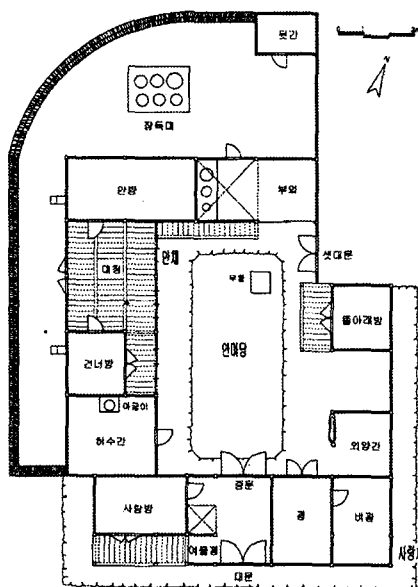


그림 20. 이영배씨 집 평면

2-8. 가좌동 이환식씨 집

기자의 안채를 L자의 행랑채와 얹어 비교적 넓직한 안마당을 형성한 집이다. 대청도 2칸과 뒷마루를 합쳐 3칸으로 넓고 안방도 2칸인 비교적 후대의 중농이상의 주거이다. 후대에 덧붙여 부엌 뒤 뒤횥에 다시 L자의 광채를 덧붙여 뒤횥 담장과 합쳐 폐쇄된 뒷마당을 형성한다. 행랑채의 사랑방은 뒷마루를 통하여 밖에서 직접 들어가게 되어있었다.

현 65세인 집주인은 이웃동네에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땀 즈음 집안 할아버지 집인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왜정때 면장을 한 그 할아버지 이전에 그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이걸 지으셨다고 들었다. 언제 지었는지 년도수는 잘 모르지만 5대정도 150년 정도 되었을 거다.”

이 집은 안채만이 원래의 오래된 집이고, 그 후 행랑채와 광채를 덧붙여 두 개의 분리된 마당영역을 형성했



그림 21. 이환식씨 집 입구외관

다. 현재 모든 방들은 퇴 방향으로 늘여서 증축했다.

“행랑채는 여기 먼저 있던 분이 따로 팔아서 헐어 갔다. 헐어가기 전 사랑방 바깥 마루가 있었는데 컷고 밖에서 바로 들어오는 방문이 있었다.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행랑채를 새 재목으로 몇 년 뒤에 새로 지었다.”

식구의 방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현재 7식구가 산다. 건방에 어머니가 아직 계시고, 어머니까지 따지면 여기에 4대가 함께 산다. 손주, 아들, 나, 우리 어머니. 지금은 손주가 방 하나 달라고 해서 방을 냈는데, 원래는 헛간이다. 옛날에는[일정때] 지금은 외양간이지만 여기 작은 사랑방이 있었다. 작은 사랑방은 우리가 오기 전에 이걸 팔았으니까 왔을 때는 이미 없었고 어릴 적엔 있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집인 여기와서 점심도 먹고 가고 해서 안다. 그때는 큰 사랑방에는 노인네가 있었고 제



그림 22. 집 안마당

일 어른, 그리고 작은 사랑방에는 아들이 있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부부생활을 한다고 해도 남자들은 남자대로 사랑에서 기거를 하고 여자들은 안에서 기거를 하고. 옛날 방쓰는 기준이 그랬다. 한 방에서 같이 있다고 하면 그건 흉이고 욕이었다.”

후일 완화된, 사랑채-안채의 남녀분리라는 과거 생활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스스로 중간층이라고 여기는 농사일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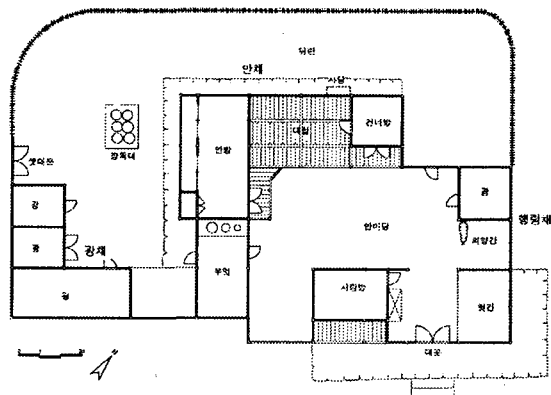


그림 23. 이환식씨 집 평면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다. 농사 수확량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자기 토지 양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그때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많은 편도 아닌 중간 정도 되었다. 수확해서 보관은 광에도 하고, 바깥에다가 둥그렇게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벼를 부었다. 필요한 대로 털어서 정미소에 갔다가 찢어다 먹고, 또 팔 일이 있으면 팔곤 했다. 통가리는 바깥에 사랑방 옆쪽에 있었다. 하나만

만들어도 거기에 100가마가 들어갔다. 집 밖에 있어도 지금은 어떨런지는 몰라도 그 때 당시에는 그걸 도둑질 해가는 사람은 없었다. 통가리에 보관하는 것은 오래 있다 꺼낼거고 광에 보관하는 것은 금방해서 쓸거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니까 광 안에 보관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광에 보관하던 벼가마를 정미소로 가져가서 찢어 와서 먹었다. 뉘주가 대청마루 사당 아래에 있었다.”

수확한 벼를 집 밖 바깥마당, 집안 광, 그리고 일상 먹을 쌀은 뉘주 보관이라는 위계를 보인다.

뒤뜰에 밖에서 들어오는 셋대문이 지금도 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부엌으로 가져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셋대문이 있었다. 옛날에는 우물은 집집마다 따로 있지 않았다. 그건 좀 넉넉한 집이었고, 아니면 동네 공동 우물이 하나 내지 둘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여자들이 설거지 다하고 동이로 물을 길어서 가져갔다. 저 너머에 우물이 두 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뒤란을 폐쇄하는 담은 반드시 필요했다.

“지금은 토담인데, 그건 우리가 여기 와서 쌓은 거다. 담도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풍수를 많이 따지는 분들은 담을 쌓아야 될 거냐, 나무 기둥을 세워 짚으로 담을 만들거냐 논란이 있었다. 처음에는 짚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와서 토담으로 쌓았다. 뒤란의 헛간도 담 쌓으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 지금 거기는 허접 쓰레기 그냥 쌓아놓구 있는데 옛날에는 담을 길렀다.”

과거에는 민간신앙이 성했다.

“고사를 많이 지냈지. 여기서 고사 안 지내는 집 별로 없었다. 새 곡식을 추수해서 이렇게 1년동안 농사가 잘 됐습니까. 그리고 지신한테 바치는 것이 고사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햇곡을 수확을 했을 때 지낸다. 뒤란에 터줏대감이 있었다. 여기 담이 있으니까 지푸라기를 해서 터줏가리라고 한다. 두 개 있었다. 부엌이나 다른 곳에는 없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걸 좋아하시지 않으셨다. 처음에 있던걸 다 갖다 불사르고 버렸다.”

집안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중요했다.

“자기네 조상의 4대 봉사를 허니까 정월하고 추석때 우선 드리고, 다음에 기제사를 드린다. 4대니까 두분씩이면 여덟분이니 8번 지낸다. 거기다 또 윗대 조상 계시면 시향드려야 한다. 시향은 끝도 없다. 옛날에 우리 문화가 4대봉사는 아주 기본으로 돼 있는 거였다.”

식사 공간을 보면, 유교 원리보다 편의성에 따라랐음을 알 수 있다.

“식사는 안방에서 다 했다. 여름에는 마루에서도 하고 겨울에는 방에서 했다. 사랑방에 아버님이 사셨는데 옛날에 완고한 집안이었으면 그리로 상을 따로 내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다. 그냥 같이 앉아서 먹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

활방식은 예나 큰 차이가 없다. 유별나게 반상을 평장히 따졌다. 품위유지 하느라고 사랑방에 상 따로 내서 잡숫는 그런 완고한 할아버지들도 계셨고, 조금 개방적으로 편하게 살자고 우리처럼 같이 생활하는 집도 있었다.”

안마당과 바깥마당의 공간 사용은 다음과 같다.

“안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흰하고 시원하라는 공간이다. 큰일 치를 때 음식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벼는 바깥마당에서 했다. 여기서 하던 먼지가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지금도 농사를 짓는데, 여기 앞에 텃밭도 있다. 요즘은 수확을 해도 마당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기계로 다하니까 마당이란 개념이 지금은 별로 없다.

외양간에는 봄철 논밭 가는 소를 한 마리 길렀다. 부엌은 찬장이 있었고, 딸감을 쌓아두는 나무간이 있어서 넓었다.

2-9. 구산동 여운경씨 집

이 집은 집주인이 태어날 때 지은, 65년 된 집이다. 8년전부터 집을 세를 주고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7자 안채와 ㄴ자 문간채로 안마당을 형성하고, 두 만나는 지점에 사랑방과 헛간이 있다.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한 만평 정도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동생들 나눠줬다. 만평이면 수확은 닷섬지기 정도된다. 농사 만평이면, 지금 같으면 못 하지. 지금도 200평에 쌀 4가마 나오는데 그 때는 반도 못 뻘다. 지금은 비료도 좋지만 기계로 하기 때문에 좀 낫다. 지금도 농사를 짓는데 동생들 다 떼어주고 5,200평만 한다.”



그림 24. 여운경씨 집 안마당

외부공간은 대문 앞 마당, 뒤란, 안마당으로 구성된다.

“대문 앞에는 옛날에는 마당이 있었는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셋길만 있다. 마당에서는 주로 타작을 했다.”

사랑방은 다른 집과는 다르게 집밖에서 직접 진입하지 않도록 막혀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랑방에는 일꾼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걸었다. 사랑방에는 보통 노인네들이 계신데 여긴 일꾼만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안 들어갔다. 사랑방에 뒷마루가 따로 없었다.”

식구는 누이동생 셋, 남동생 둘, 부모님 해서 모두 여덟 식구였다고 한다. 각 방의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이 2칸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 사랑방은 일꾼을 쫓으니까 8식구가 옛날엔 한 방에서 자기도 했는데, 안방 건너방 두 방에서 잤다. 결혼하고는 건너방을 쓰구 부모님을 비롯해 나머지 식구가 안방에서 다 잤다. 안방 뒤에 놓이 있었다. 다락[부엌상부]이 꽤 커서 물건을 많이 뒀다. 식사는 옛날에 모든 식구가 방에서 다 했다. 건너방에 살 때 건너와서 안방에서 했다. 여름엔 대청에서 했다. 여름엔 모기장 치고 대청에서 잠도 많이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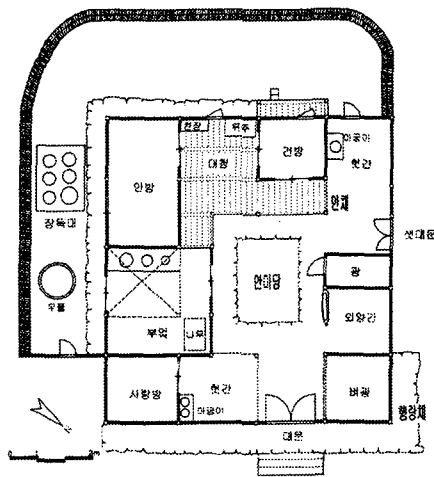


그림 25. 여운경씨 집 평면

농사작업의 벼 수확과정과 보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당에서 벼 타작해서 벼광에다 넣었다. 벼광 문짝이 있어 전체가 뒤주같이 벼로 다 채웠다. 보통 뒤주같이 나무를 하나 하나씩 빼가지고 위로 차례로 차 올라가도록 한다. 한창 할 땐 위 조금만 남고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다. 벼를 배어와서 집집마다 날가리를 둥그렇게 쌓고 그러곤 발들로 떨어뜨렸다. 날가리는 3개정도 쌓았다. 나무 절구를 얹어놓고 태를 치고 나서, 반 떨어지면 발들로 해서 벼광에 넣는다. 그전엔 논에서 벼를 쌓고 거기서 떨어와도 되는데 집에 다 가져와서 했다. 낱알은 마당에 통가리라고 만들어 넣었다. 통가리는 새끼로 둥그렇게 매서 둘레가 여덟발 정도 키높이 정도 된다. 마당에 하나 만든다. 밀로 새 나오지 않게 단단하게 한다. 대청마루에 뒤주를 두고 찬장도 두었다. 뒤주는 건방 귀퉁이 쪽에 두었다. 뒤주에는 쌀이 3가마 들어가는 꽤 큰 나무들이었다.”

민간신앙은 윗대에서 성행했으나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다.

“위패를 뒤주 위쪽에 모셨다. 조상위패는 아니다. 뒤라 불렀는지 노인네들이나 알지 잘 모르겠다. 대감 병거지를 놓고 거기다 옛날에 돈도 넣었다. 10월달 되면 고

사지냈다. 농사지어 정성드리는거다. 벼밭에도 주저리를 써왔다. 뒤란 있는데도, 안방 귀퉁이도 있었다. 뒤에 있는 건 크다. 터줏대감이라고도 하고 텃대감이라고도 했다. 다른 것들의 이름은 노인네들이나 안다. 크기는 서로 비슷했다. 10월달에 고사지낼 때 짚으로 엮어서 거기다 술도 갖다 놓고 했다.”

동네굿도 지냈다.

“옛날에 도장굿, 산굿이라고 하는 동네굿을 정성을 드려 지냈다. 업나무라고 지금도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 안한다. 3년전만해도 굿은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해도 노인네들은 다 했다. 3년마다 걸러서 했다.”

제사는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마루에서 지냈다. 뒤에 병풍을 치고, 앞에 진설을 했으며, 평소 위패는 따로 모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결혼식도 마루에서 했다.

“3형제가 여기서 결혼했다. 나만 구식으로 하구 다 신식으로 했다. 구식은 여기서 대청마루에서 했다.”

집의 두 헛간에는 아궁이와 솔이 있었다.

“헛간에는 여름에 꿀 같은 것을 두었다. 한쪽에는 사랑방 아궁이가 있었다. 건너방 앞에도 뒷마루에 아궁이가 있다.”

당시 부엌을 보자.

“소여물은 부엌 가마솥에서 끓였다. 가마솥, 밥솥, 국솥, 3개 있었는데, 소여물은 가마솥에서 끓였다. 부엌안에는 물항아리와 독 몇 개 놓고 나뭇간이 있었다. 나무를 쌓아두진 않고 다른 건 없고 곡초[벗짚]였다. 부엌바닥은 아궁이 있는 쪽이 깊었다. 앉아서 볼 때고 했는데, 주로 곡초를 땀다. 베어다 마당에 쌓아놓았던 것을 부엌으로 가져와 놔두었다가 땀다. 나무도 넣기도 했다.”

뒤란을 막는 담도 흙담이 아니고 ‘곡초담’으로 들렀다고 한다.

대문 외에 부엌 반대편에 마당출입의 ‘셋대문’이 있었고, 뒤란의 쪽문이 있었다.

“셋대문은 여름에 바람 잘 들어오라고 썼다. 부엌 반대편에 있어서 여자들 대문은 아니었다. 전에는 마당 옆 쪽으로 문이 나 있었다.”

대청은 원래 마당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대청 앞에 원래 문이 없이 횡하니 트여 있었는데 지금의 유리문을 한지는 얼마 안된다. 한 9년. 최근까지도 없었다.”

2-10. 문봉동 이병출씨 집

이 집은 6·25나고 지은, 50년 정도 된 집으로 문봉동의 집성 전주이씨인 느티나무 집의 작은집이다. 부엌-안방-대청-건너방의 7자형의 안채와

벼밭-사랑방-대문간-헛간-외양간의 7자형의 사랑채가 결합하여 넓은 안마당을 형성하는 비교적 큰 집이다. 안방, 대청 모두 크다. 담장으로 폐쇄된 안채 뒤 뒷뜰이 아주 넓다. 집과 마당의 규모로 보아 중농이상의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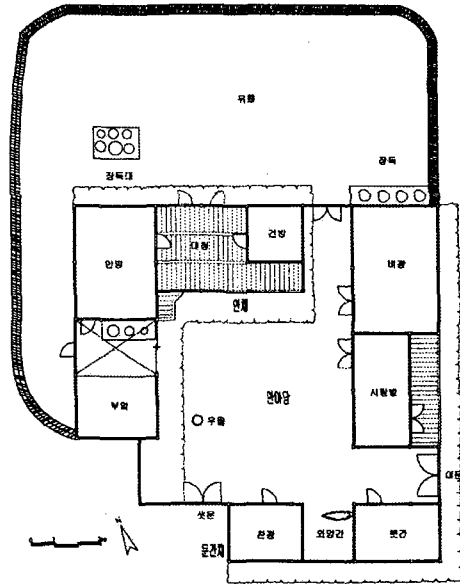


그림 26. 이병출씨 집 평면

현 주인인 할머니는 22살에 시집왔다.

“결혼식은 친정집에서 하고 이 집으로 올 때 말이나 가마가 아닌 택시를 타고 왔다.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큰댁 사당에 가서 사당 열어놓고 대청마루에 국수며 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다. 그리고 조상님이 계신 산에 가서 약주 붓고 ‘우리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라고.”



그림 27. 이병출씨 집 안마당에서 본 안채

가족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방을 썼다.

“그 당시 안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가 계시고, 사랑방에 시동생이 있었고, 건방을 할머니 내외가 쓰셨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어머니가 안방에 계시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사랑방으로 가셨다. 사랑방에 있던 시동생은 장가들어 나가고 안방에 우리가 왔다. 건방은 우리 큰 아들 내외가 썼고 사랑방을 나눠 우리딸이랑 할머니가 썼다.”

농사를 비교적 크게 지었다.

“수확을 해서 형제들 다 떼어주고도 1년에 70~80가마 팔았다. 수확은 바깥마당에서 탈곡기로 했는데 기계

는 우리 것이 아니고 기계주인이 떨어주고 얼마씩 받아 갔다. 헛간 자체를 통가리라해서 사람이 다닐 공간만 남겨놓고 막아 그 속에 벼를 보관했는데 쥐도 파먹고 지저분해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벼판을 지었다. 벼판이 아주 크고 다른 광들이 더 있다. 탈곡기로 벼를 떨어서 벼 알갱이를 벼판에 쌓아놓았다가 벼가 필려고 하는 7월쯤 정미소에서 쪼개 팔았다. 정미소에서 70~80가마 쪼는다면 쪼어주는 값으로 얼마 정도 요구하는데, 그 대신 책임지고 팔아서 돈으로 챙겨줬다.”

민간신앙이 활발히 지켜졌다.

“뒤꼍에 들어가면 건방 기단위에 조그맣게 터줏가리가 하나있고, 뒤꼍에 크게 하나 있고, 부엌에는 내가 이 집에 복을 갖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릇에 쌀을 담아 짚으로 만든 터줏가리로 덮어 사랑(찬장) 밑에 넣어줬다. 시집와서 어디 가서 [잡을] 보니까, 내가 복이 많아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거 하나 받아 놨다. 해마다 10월달이면 고사를 지냈는데, 시아버지 살아 계셨을 땐 아버지 나이하고 그 날짜를 맞춰 좋은 날에 지냈다. 보통 돼지날, 말날에 많이 했다.”

사랑방은 과거 다른집처럼 외부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툇마루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외부 진입 툇마루를 없애서 방을 크게 늘였다. 현재는 대청도 유리문을 달아서 내부화 했다.

2-11. 가좌동 윤일병씨 집

중산마을에 있는, 3형제중 막내인 현 주인이 32년 전부터 살았는데, 증조할아버지 때 지은 집이라 하므로 100여년 이상의 집으로 추정된다. 부엌-안방-대청-건너방의 7자형 안채와 사랑방-외양간-헛간의 2자형 행랑채가 결합하여 작은 안마당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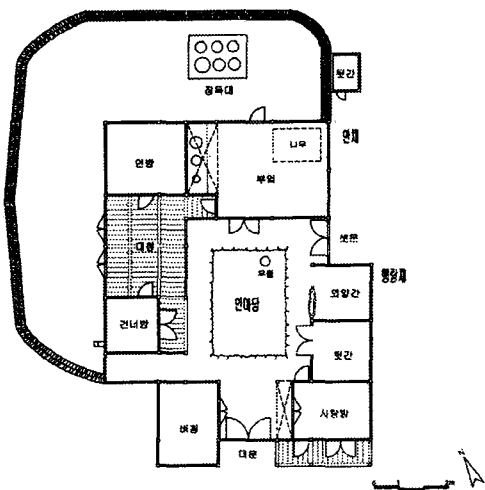


그림 28. 윤일병씨 집 평면
대가족으로서 방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안방은 아버지와 둘째 형이 살았고, 건너방은 우리 내외가 살았고, 사랑방은 큰형내외가 살았다. 8년전 아버님과 큰형내외가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가 안방을 쓰고, 아이들[남녀 둘]이 건너방을 쓴다. 사랑방은 창고로 쓰고 있다.”



그림 29. 윤일병씨 집 입구행랑채

안마당에 우물이 있고, 뒤란은 담으로 폐쇄되어 있다. 대문 옆 사랑방은 외부에서 진입하게 밖에 툇마루가 나 있었다. 지금은 퇴락했지만 그 형태는 남아있다.

2-12. 구산동 김순희씨 집

올해 75세 되는 현주인인 할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이 집은 100년 이상 된 집이다. 대문을 들어가면, 사랑채가 없이 안채만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7자형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집이다. 그러나 담 쪽으로의 헛간이 부엌-안방-대청-건너방의 안채와 결합하여 2자로 둘러싸서 작지만 폐쇄된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대청은 과거에는 그냥 흙바닥 봉당으로 되어있었다.

할머니는 21살에 시집왔다.

“침에는 나두 시집을 가서 난리통에 혼자가 됐다. 딸 하나 낳아놓고 나왔는데, 여기오니까 [재혼] 할아버지 밑에 아들하나가 있었다. 내가 여기와서 5남매(아들 3형제, 딸 2)를 낳았다.”

방은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할아버지랑 5남매와 아들 하나 총 8식구가 안방에서 한테 모여 잤고 건방은 세를 쳤다. 애들 가운데 재우고 할아버지 곁에 계대로 한번 안 가봤다.”



그림 30. 김순희씨 집 뒤란에서 본 안채

식사는 안방에서 했다.

“밥상도 안 차리고 장판에다 놓고 먹었다. 나혼자 먹을 땐 반찬도 없었다.”

농사는 10마지기도 안되었다고 하는 소농이었다. 수확물은 헛간에 보관했고 소는 안 키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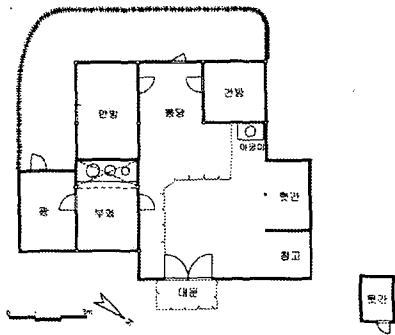


그림 31. 김순희씨 집 평면

뒤란에 터줏가리는 없었고, 민간신앙도 따로 없었다.

“교회를 안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먹고살 기에도 빠듯해서 교사는 안 지냈다.”

2-13. 대자동 감나무집

서울 근교인 고양에는 왕실과 고관대작의 능묘가 많은데, 이 집은 숙종 제2제비인 인원왕후의 부친, 경은부원군 경주김씨 김주신(金柱臣)의 묘막 성격의, 임금이 하사한 대자골의 집이다.

이 집의 대청에는 왕후가 썼다는 “永思亭”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부원군 사후 기준 280년이 된 고양 최고의 고가가 된다. 현재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부엌과 건너방-뜰아래방의 두 날개가 붙은 ㄷ자형의 본채와, 다섯 단 아래에 대문포함한 일자형 행랑채로 감싼 안마당을 형성한다. 배치도 정형적이지만 목조 부채도, 집주인이 “대패로 다듬지 않고 자귀로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질만한 집이다. 현재에는 본채가 퇴락하여 비도 새고 기둥도 기울어져 허물어지기 직전이다.

행랑채는 21년전 보수하여 비교적 새건물이나, 퇴방향 방 늘이기와, 외양간과 헛간이 방으로 변형되게 고쳐졌다. 현재 행랑채를 비롯 대지안에 가건물을 몇 개 들여 간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행랑채를 앞으로 하여 안채를 감싸는 토담이 3면으로 빙 둘러져 있다. 현재 뒷담은 허물어 졌으나 일각문 자리는 있다.

“뒷산 무덤을 지키는 능참봉같은 능지기가 살았는데, 옷대 옷대 전부터 일정때 참관하던 할아버지부터 직계 종손은 아닌데 들어와 살았다. 35년전에 이리 와서 살았다. . . 집이 비가 새서 인근에 나가서 산다. 1년에 한번 음력 시월 오일에 시체를 지낸다. 아홉 산소 옷대들을 한꺼번에 지내는 가족공동묘지 같은 거다. 제사 음식 차리는 것은 다 내가 집에서 담당하고 이웃에서도 도와준

다. 경비는 위답(位畓)으로 충당한다. 전에는 상당히 많았으나 지금은 밭 2천평, 논 4백평 정도밖에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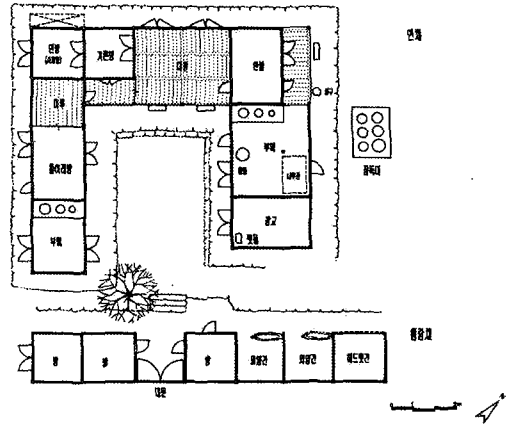


그림 32. 대자동 감나무집 평면

이 집의 특징은 처음부터 묘막으로 지어진 집이므로 내외분리나 사랑채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사 음식장만을 위해 부엌이 크고 뜰아래방에 부엌이 하나 더 있다. 대청 건너 모서리에 일명 ‘사체방’이라 부르는 제사 전용 방이 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고 기제사와 차례를 지낸다. 그 방에는 다락이라 부르는 벽감이 있어 문갑을 두고 4대조의 위패를 모신다. 그 아래의 마루방은 제사 부속 공간이 된다. 드문 일이지만 시제시 일기가 나빠 비가 올 때에는 두칸의 대청마루 가운데에 병풍을 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면담을 통하여 각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을 보자.

안방에서는 우리 부부가 썼다. 남쪽 날개채의 큰방인 뜰아래방에서 4남매 아들 둘 딸 둘의 아이들이 썼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사용했다. 거 큰방은 애들이 크면서 썼다. 부엌에는 나뭇단을 쌓아놓고, 집앞 감나무 아래 우물에서 길어와 여러 지게로 채워야 차는 큰 물독이 있었다. 부엌앞 창고칸에는 맷돌, 물레, 체, 키 같은 물건이 있었고, 버 너덧가마를 보관하는 뒤주와 쌀 세가마 정도 보관하는 독들이 있었다. 장독은 지금은 대청 뒤에 있으나 전에는 부엌 바로 뒤에 있었다. 대문간 행랑채에는 손님용도의 방과 소 외양간 두 칸과 지게 같은 농사 용구를 두는 허드렛간이 있었다.



그림 33. 감나무집 외관 입구

대문 진입후 5단의 계단을 올라가야 안마당이 되는, 높이차를 둔데 대해 “행랑하인은 한 단 낮게” 했다고 답한다. 안방의 뒤 북쪽으로 난 빛마

루의 용도가 의문인데, 안식구가 바람쐐리 나가기도 했는데 후에 봉해버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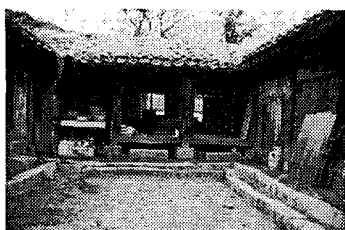


그림 34. 감나무집 안마당 대청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집을 빙 두른 장대석의 기단과 석축과 냇돌이다. 길이가 1m가 넘고 바르게 가공된 돌들은 인근의 폐사에서 운반해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평면유형은 안방-부엌 관계로 보면 '경기형'¹¹⁾ 대청-거른방 관계를 보면 가례서의 房室과 유사한 '비대칭형'¹²⁾으로 볼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안마당에서 보면 두 기둥 사이 여칸을 갖는 정형적 3칸 '좌우대칭형'으로 인식된다.(그림 34)

3. 종합

(1) 공간의 종류와 명칭

농업 중 논농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양 마을은 앞에 넓은 토지와 배후에 낮은 뒷산을 둔 집락을 이루고 있다. 개개 집 앞에 '텃밭'이 있고, 대문 들어가기 전 울타리가 따로 없는 '바깥마당'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문 밖에 오늘날과는 다른, 농사 거름 만들기에 필수인 변소를 두고 있었다. 그 옆에 돼지우리도 함께 있었다.

'대문'은 '행랑채' 속에 포함되어 한 칸을 이루고 있다. 대문을 들어가면 안채 앞에 둘러싸인 '안마당'이 있다. 간혹 중농이상의 집에 대문 외에 안마당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셋대문'이 있기도 하다. 셋대문은 집에 따라서 여성전용 문일 수도 있고, 작업의 편의상 실용적 문일 수도 있다. 드물게는 뒤란으로 진입하는 여성 전용 작은 쪽문도 있다.

'안채'는 예외 없이 'ㄱ자형'이다 (원 기억 포함). 안채는 '안방'에 인접한 '부엌'이 외부로 돌출해있고,¹³⁾ 가운데에 마당으로 개방된 '(대청)마루'가 있

고 '거른방'(건너방, 건방)이 있다. ㄱ자 안채에 대하여 ㄴ자 '행랑채'가 마주보고 안마당을 형성한다. 안채는 모두가 안채로 부르고 있으나 행랑채에 대해서는 명칭이 분분하다. 따로 명칭이 없거나 '문간채'라고도 부르는데, 비록 '사랑방'이 포함되어있지만 '사랑채'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다. 이는 안채가 중심이고 행랑채는 그에 부속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행랑채에는 사랑방 외에 '외양간'과 '벚광'을 포함한, 간혹 '찬광'도 있는 광이 주를 이루고, 농기구와 허드레 물건을 두는, 문이 따로 없는 '허수간' 일명 '헛간'이 반드시 있다.

안마당에 대하여 안채 뒤편에 뒷마당이 있는데, 그다지 넓지 않은 탓에 마당이라는 칭호를 갖지는 않고, '뒤란' '뒤안' '뒤곶'의 칭호를 갖는다. 뒤란은 예외 없이 담장으로 외부로부터 폐쇄되어 있다. 담장은 짙 이엉지붕을 갖는 흙담에서부터 시선 차단 기능만 갖는 나무 기둥에 짙으로 얹은 짙담까지 다양하다. 부엌문으로 나갈 수 있는 뒤란은 가까이 장독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안대청 뒷문으로 내다보이므로 나무를 심고 보통 화단을 가꾼다. 안마당에서 '셋문'을 통하여 뒤란으로 나갈 수도 있다. 뒤란은 폐쇄되고 은밀한 여성공간이다. 민간신앙인 터주나 업의 고사지내기의 장소가 된다.

농사규모가 큰집은 광이 발달하여 별도의 '광채'가 있기도 하며 또 '허수간'이 별도로 독립하기도 한다.

대상 주거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사랑방에서 마을로 열린 바깥 마당, ㄱ자 안채-행랑채로 폐쇄된 안마당, 그리고 반드시 안채 뒤의 담으로 폐쇄된 은밀한 뒤란을 갖는 것이다.

(2) 주거의 평면 유형과 공간인식

오래되었다는 고양시 주거는 거의 예외 없이 ㄱ자 안채와 ㄴ자 행랑채가 어긋나게 합하여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조사 대상 주거 중 예외는 단 두 집이다. 집13 감나무 묘막집이 좌우대칭의 엄숙함을 갖기 위하여 ㄴ자 본채와 ㄱ자 행랑채로 안마당을 형성하고, 집12 최소규모의 김순희 집이 ㄱ자 안채에 헛간과 담이 안마당을 형성한다.

건축학계에서 이러한 유형을 '튼트자'집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¹⁴⁾ 도상학적으로 이런 집을 보

11)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상류 주택론 "경기형/민가형".
12) 김기주,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 형식에 미친 가례의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대칭형/비대칭형", 홍승재,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제적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상채형/변체형

13) 정인국, 앞책 '경기형'의 특징이다.
14) 예,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427-435

고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를 상징하는 것은 학자들의 지나친 확장적 사고라고 생각된다. 튼ㄱ자라면 ㄱ자에서 한 변이 터진 ㄷ자일 것이다. 거주자들이 집을 인식할 때 건축연구자들처럼 ㄱ자의 전체 완성 형태로서가 아니라, 안채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오래된 집을 몰아서 찾을 때에도, 안채중심으로 'ㄱ자 집'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사랑, 행랑, 대문간, 곳간이 있는 곳은 기타 부속채가 부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ㄱ자 안채에서 시작하여 증축해 나가서 현재의 완성 형태가 된 집이 많다.¹⁵⁾

한편 고양시 대상주거의 안마당은 ㄱㄴ 사이가 트인 것이 아니라 담장으로 외부와 폐쇄되어 있다. ㄱㄴ사이가 넓게 터져서 바람이 통하는, 경기남부와 충청 전라도에 분포하는 소위 '튼ㄱ자집'라고 하는 주거와는 달리, 결코 '터지지' 않았다.

'어긋난 ㄱ자로서 폐쇄된 안마당을 형성하는' 고양 주거는 '튼ㄱ자 집'으로 부르는 것 보다 기존 학계에 알려진 김광언 교수의 'ㄱㄴ자집'¹⁶⁾ 사물에 대해 더 합당한 명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양시 주거 유형의 보다 더 정확한 명칭으로 '폐쇄 밀집형 ㄱㄴ자집'으로 제안한다.

고양시 주거는 ㄱㄴ 두 건물의 밀집도가 보다 높으며 안마당의 규모는 더 작고 더 폐쇄적이다. 그 이유를 추론해보면, 다른 지역 주거와 달리 바깥마당을 감싸는 외부 담장이 없으므로, 방어상 적어도 안마당에서는 외부와 격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연구에서 채집된 민가중 안채의 유형이 一자집이 없고 예외없이 'ㄱ자집' 일명 '곱은자 집'이다. 농가의 빈부 유무를 떠나 공통이다. 안채가 부엌을 시작으로 一자 횡으로 칸분화를 하는 방식의 유형을 정인국씨는 '민가형'이라 명명하고, ㄱ자로 부엌이 돌출한 형을 '경기형'이라 명명하였다.¹⁷⁾ 경기형 형성 과정에 대해, 서울 궁중생활이 양반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 나왔다는 것이 정설로 통용되고 있다.¹⁸⁾

유형 형성 원인을 일차 추정하면, 넓은 평야지

대와는 달리 집락의 밀도가 높은 좁은 대지에다가 둘러싸인 중심 안마당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소형 빈농이라도 ㄱ자 안채만을 가지고도 폐쇄된 안마당을 만듦을 보여준다.(집12)

또 하나는 부엌을 안마당에 돌출시킴으로써 부엌의 안사람이 안방은 물론 안마당, 거른방,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까지 기능과 동선과 시선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안마당에서는 타지역 튼ㄱ자형 농가에서처럼 농사작업은 일어나지 않는다. 안마당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답을 많이 듣는다. 즉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엌의 연장으로서, 안 대청과의 연결, 거른방과 사랑의 아궁이 관리 등, 안마당은 빈 공간이면서 동시에 모든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경기형 민가에서 ㄱ자 안채를 형성한 원인으로, 도형 자체보다 마당과 채의 얽음과 거주자의 활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공간에서의 거주

자고 먹는 일상생활중심으로 공간을 보자.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식구가 많았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3대 거주는 기본이었고 형제도 많으면 8남매도 희귀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가족원에도 불구하고 안방과 거른방 두 개의 방을 기본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 안방은 부모님을 모시고 거른방은 젊은 아들부부가 사용했다. 보통 맏이가 집을 계승하므로 동생들은 모두 안방 옷목에서 부모님과 같이 잔다. 사랑방이 간혹 동생들 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집4) 또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들 기거공간으로 바뀌기도 하였다.(집6)

사랑방은 명칭과는 다르게, 보통 남자주인,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는 것 보다는 낮 동안 기거하면서 동네 노인정처럼 '마을방'으로 사용되었다. 간혹 일손이 부족한 집에서 처음부터 사랑방에 일꾼이 기거하기도 하였다.(집4) 아니면 조금 더 부농은 별도로 뒷편에 광채에 일꾼방을 따로 두기도 하였다.(집1) 또 예외적으로 규모가 큰 집에서 사랑방과는 별도로 '뜰아랫방'이라는 방이 하나 더 있어 동생들이 거주하기도 하였다.(집7)

식사는 가족 모두가 모여 주로 안방에서 했다. 여름에는 대청마루에서 했다. 식구가 많으면 안방에서도 아래목에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남자의

15) 12번 집은 ㄱ자집 중심으로 볼 때 미완성 ㄱㄴ자집이다.

16) 김광언, 「한국주거민속지」, 민음사. 229-233

17)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1974. 374-377

18) 윗글 371

권위를 높이는 겸상이 차려지고, 그 외 식구는 윗목에서, 크고 둥근 상에서 둘러앉아 먹는다. 며느리인 여성은 “우리는 상 자리에도 못 가고 오며 가며 떠먹고 부엌에 앉아서도 먹고 그렇게 산거지 뭐”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사 공간이 불안정하였다. 마을방이 된 사랑방에 할아버지 친구들이 오시면 할머니나 며느리는 음식을 부엌에서부터 날라서 갔다.

음식은 모두 부엌에서, 끓이는 것은 안방 부뚜막에 걸려있는 세 개의 솥에서 이루어진다. 제일 큰 가마솥은 특별 용도의 매주 쭈거나 옛을 고는데, 보통 밥은 중솥에, 국은 작은 솥에 했다. 부엌에는 당시 연료가 장작이었으므로 반드시 ‘나뭇간’이 있었다. 좀 큰 집은 별도의 ‘나뭇광’이 있었다. 또 부엌 내부에, 집이 좀 큰 집은 부엌 바로 밖에 별도의 ‘김치광’을 두었다. 또 ‘찬광’이 있기도 하다. 부엌문을 나가면 뒤란에 여러 개의 독이 있는 ‘장독대’가 있다. 집에 따라서는 뒤란에 ‘우물’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안마당에 우물이 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 개울물을 길어 먹거나 마을에 한두 개 있는 마을 우물에 가서 지게로 물을 지어 날라야 했다. 부엌에는 큰 ‘물독’이 반드시 놓이게 된다.

부엌은 제사나 잔치 같은 ‘큰일’을 치를 때 제일 밝비게 된다. 주위에서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작업이 안마당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취사용 쌀은 대청마루에 두 가마니 들어가는 큰 뒤주를 두고 있었다. 아니면 광에 큰 쌀 항아리와 각종 잡곡 보관용 항아리에 두고 있었다.

대청마루는 그냥 ‘마루’로 불리는데 사당이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하고 위계 높은 공간이다. 종가집의 종손은 사당을 모시고 있다. 대갓집에 있는 별채의 사당이 아니라 대청마루 뒷벽 밖으로 튀어나간 벽감 상자에 문을 달아 문갑 모양으로 4대조 위패를 모신다.(집1, 6) 4대조 조상이므로 직계가 아닌 집성마을의 다른 친척집들도 설이면 제사를 지내러 모였다.(집4) 대개의 집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부부의 2대조의 제사를 대청마루에서 지낸다. 예전에는 위패를 모셨으나 지금은 보기 힘들다. 뒷벽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진설을 한다. 대청마루는 상례를 치른 후 3년상의 상청을 모신 곳이다.(집4, 6)

결혼식은 경기도 풍습에 따라 신부집에서 지내

고, 신랑집인 연구 대상 집들에서는 별다른 행사가 없었다. 신부집에서 결혼하고 신랑집에 와서 폐백 절하는 장소가 대청마루이다. 나이가 70이상이면 ‘죽두리 쓰고’ 구식으로 했으나. 그 후에는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하고, 집에서 피로연만 하여 결혼 의례공간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졌다.

(4) 안과 밖의 영역

본 연구 주거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날 외부로 인식되는 대문 밖 마을 영역이 집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바깥마당은 물적 경계 장치가 없는, 마을로 열려진 집 외부 공간이다. 외부에서 대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입하게 되는 사랑방은, 비록 툇마루라는 약간의 완충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공적 공간에서 바로 사적공간을 직행하는 이상한 공간처럼 보인다.¹⁹⁾ 일반적으로는 마을과 집은 담장, 행랑채, 대문으로 차단 구획된, 어떤 형태로든 영역의 구분이 확실하다.

그런데 본 주거에서 일견 公的공간처럼 보이는 담도 없는 대문밖 외부는 마치 私的 공간처럼 사용된다. 그 앞에 자기네 텃밭이 있고 마당 끝에 변소도 있고 돼지우리도 있다. 또 추수 때 바깥마당은 사적 타작 공간으로 사용되며 중요 재산인 벧가리나 통가리를 그 공간에 쌓아놓아도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 담만 없다 뿐이지 보이지 않는 사적영역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외부 변소와 대문 사이로 마을길이 지나가기도 한다.(집1)

이 현상을 해석하면, 이웃집들이 있는 마을이 현대사회에서는 남남의 공적공간이지만, 전통사회에서 서로서로 친근한 마을은 외부세계에 대하여 이미 한 단계의 내부공간이 된다. 마을이 準公的 공간이라면, 집 대문밖은 황량한 외부공간이 아닌 準私的 공간이 되는 셈이다.

마을 -대문밖 바깥마당 -안마당 -뒤란의 가장 개방된 公的공간에서부터 가장 은밀한 私的공간이라는 안팎의 연쇄가 성립한다.

(5) 貧富 계층 과 농사 작업

집의 규모는 빈부의 계층 차이를 보여준다. 지주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소작농이었다. 1949년 토지개혁 이후에 빚으로 땅을 얻게 된 집이 많았고,

19) 하지만, 이상해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9. 202쪽에서 경기 민가의 형태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음.

당시 제주도 직접 농사를 짓는 직영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잣집은 채와 칸의 수가 많고 면적규모가 크다. 면담에서 당시 면 단위(벽체면)에서도 속칭 ‘한옥집’이라 부르는 ‘기와집’이 거의 없었고, (집1) 마을 전체가 ‘초가집’이었음을 보여 준다. (집5) 목재 부재의 굵기도 집의 부유함을 나타내며 기둥은 물론이고 특히 대청마루에서 보이는 대들보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대청마루도 원래는 마루가 아니고 흙바닥의 ‘봉당’이었다. 빈농에서는 원래 흙바닥이었는데 나중에 나무를 사서 마루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집 6,12)

고양이 주거는 농사를 배경으로 하므로 부잣집은 수확한 곡식을 보관하는 광채가 크게 발달하게 되고, 중농이라도 낱알 벼를 보관하거나, 가마니 섬을 보관하는 ‘벼광’, 혹은 쌀을 비롯하여 잡곡을 넣어두는 항아리들이 있는 ‘광’이 발달하게 된다. 쌀뒤주는 대청마루에 두었는데, 뒤주가 전혀 없었다는 집도 있는 것으로 보아 뒤주를 두는 집은 중농 이상에 속하였던 것 같다.

당시 큰 재산이었던 농사 작업용 가축인 소도 귀하여서 외양간 칸은 집집마다 모두 있지만 동네에 실제로 소를 키우고 있는 집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각 집 면담을 통해 보면 소를 늘 키웠던 것이 아니고 키웠던 시기와 없었던 시기도 나타난다. 소를 키움에 따라 소죽을 끓이는 작업이 중요하게 된다. 보통 거른방 앞의 높은 뒷마루 밑의 아궁이에서 끓이고, 집에 따라서는 안방 부엌 아궁이의 가마솥에서도 끓이기도 하였다.

벼를 수확하는 과정의 작업은 집이라는 공간과 직결되어 있다. 논에서 벼를 베면 그 자리서 말렸다가 집 대문앞 바깥마당으로 가져와서 타작을 한다. 먼저 나무절구를 얹어놓고 ‘태질’을 하여 반정도 떨어내고 다음 ‘훑치개’라 하여 쇠뿔 같은 곳으로 훑어내고 또 여자들이 절구에 벼를 매달아놓고 ‘챌가지’라 해서 회초리 같은 것으로 쳐서 떨어뜨린다. 그후 짚 북대기를 말린다. 시대가 나아가 기계가 발달하여 탈곡기, 소위 ‘발틀’로 전환되었다.

위와 같은 방식도 있고 아니면 ‘벧가리’를 높이 쌓았다가 필요한 만큼 빼내서 그때그때 타작을 하는 방식도 있었다. 수확한 벼 낱알은 규모가 많은 집은 ‘통가리’라 하여 습기가 차지 않게 바닥에 원

목을 깔고 짚으로 이영을 엮어 빙 둘러 새지 않게 하면서 키 높이가 이상 자꾸 올려서 꼭대기에 벧짚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보관했다. 지주 집으로 가마니로 가져온 벼는 대문 앞에 차곡차곡 쌓았는데 높이가 너댓길 정도까지 꽤 높았다. 먼 곳에서는 아예 쌀로 찼어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또 당시는 가마니가 귀하여 두 가마 짜리 짚으로 엮은 것을 ‘섬’이라 하여 광채에 수십섬 보관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벧광’ 칸에 뒤주 식으로 숫자가 쓰여진 판때기를 하나씩 끼워가며 위로 올려서 거의 천장 꼭대기까지 부어 넣었다.

각 집에 방아가 따로 없었다. 당시 벼를 쌀로 만드는 ‘매통’이라는 키 높이의 통나무 도구를 사용하여 현미를 만들었다. 위에서 구멍으로 벼를 부어 넣고 양쪽 손잡이를 빙빙 돌리면 가운데 이빨에 겹질이 벗겨져 나왔다. 당시 집집마다 ‘현미 만들어 팔기’ 부업을 했다고 한다. 후에는 동네에 정미소가 생겨서 대부분의 쌀제조를 담당했다.

(6) 男女 유별과 班常 의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형은 양반 유교중심의 사고가 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본다.²⁰⁾ 유교중심의 조선 사회의 영향이 심대할 것이고, 고양시 여러 마을에 양반씨족이 많았음도 사실이다. 또 비록 양반은 아닌 부농일지라도 양반 따라하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주거의 평면형태와 생활을 통하여 검증해 보자.

유교원리중 조상숭배의 전통은 ‘대청마루에 사당모셔서 4대봉사하기’로 있었지만 현 집주인 세대에서는 간소화되어 근근히 명맥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년상으로 대청에서 상차리기는 할머니 세대까지는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보인다.

남녀유별에서 ‘사랑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조선중기 이후 집권층이 주자학을 동원하여 남성지배권력을 강화한 결과가 사랑중심주의의 권력공간 이동이었음이 최근의 연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집에서 여자는 안채에, 남자는 사랑채에 영역을 구분하여 ‘내외함’이 양반의 기본이었다. 고양 주거에서 ‘사랑방’은 있지만 ‘사랑채’라는 말은 발달하지 않았음과 ‘사랑마당’을 갖는 ‘사랑영역’ 또한 볼 수 없었다. 단 유일하게 집2가 중문을 두고 안

20) 정인국, 위 책, 372

채, 사랑채 두 개의 영역으로 (비록 사랑마당인지 문간마당인지 불분명하지만) 시선차단용 빈지담으로 구분되었었고, 그 외에는 전부 안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사랑방'은 말 그대로 '남자어른의 주거 영역'이 아니고, 단지 집안 어른 '할아버지 손님 접대공간'으로 의미가 축소되었고, 오히려 '남자 늙은이들의 동네 노인정'으로 변화하였다. '사랑방'은 남녀유별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생활 곳곳에 남자우대하기가 나타나지만, 성적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가족 안채와 외부인 사랑채가 서울형 양반주거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엌 인근에서 안마당으로 직접 진입하는 '셋대문'도 여성분리용 문이라기보다는 작업 편의의 문 또는 해가 지면 출입하는, 상징적 대문의의 실질적 진입문이 더 타당하다.(집1,2) 유교원리로 씨의 양반의 영향이라는 해석보다는 농사작업이라는 실질생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고양시 전통주거를 해석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7) 민간신앙과 집

전통 사회에서의 집은 현대와 같이 물건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집이었고 정신으로서의 집이었다. 터를 관장하는 신의 허락 아래서, 집과 재산과 음식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과 더불어 살아갔었다. 유교 사회였지만 "어느 집이나 고사를 지냈다"고 할 정도로 민간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가장 으뜸가는 집 자체의 신인 '성주신'은 대청 위 대들보 위에 배를 걸쳐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처럼 성주 기둥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대청 가운데 기둥은 '산기둥'이라고 해서 벼를 걸어놓고 중요시했다. 뒤편에는 터를 관장하는 '터줏가리'가 있었다. 짚으로 원뿔형의 주저리를 엮어서 세워놓았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는 그 아래 단지가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한다. 주로 안식구들이 고사지내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석신(제석), 업신, 조왕신 등 수없이 많았으나 지금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현재의 노인제보자들도 형태는 기억하지만 정확한 명칭과 역할은 잘 모르고 있었다. 다만 쌀을 대청마루나 광같은 공간 군데 군데에 평상시에는 단지나 대감 병거지에 넣어 모시기도 하지만 춘궁기에 비상식량으로 사용했다는 실용적인 용도로 해석하고 있었다. 또 연제부터인

가 더 이상 모시지 않고 "지푸라기를 다 태워버렸다"는 집도 있었다. 현대에서 민간신앙을 그대로 답습, 또는 타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정신의 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8) 공간의 확장

전통주거는 목재의 제약에 의해 한 칸의 모듈이 8자(2.4m), 크면 10자(3m)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아늑한 공간감을 느끼는 척도이다. 그러나 시대가 나오면서 보다 큰 내부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통 퇴방향으로의 방의 확장이 일어난다. 거른방과 사랑방의 뒷마루가 없어지고 방으로 편입된다. 또 안방은 뒷벽 쪽으로 넓혀서 처마밑 까지 넓힌다. 이때는 구조기둥과는 별도로 벽돌로 벽을 쌓게 된다.

다음으로 방의 수를 늘리게 된다. 예전에는 적은 숫자의 방을 대가족 식구들이 함께 썼지만 점차 가족은 줄어도 개인의 독립된 방을 원하게 되어 헛간이나 광의 칸이 방으로 전환된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랑방은 외부로부터의 진입을 차단하고 자녀들의 방으로 주게 된다. 그리고 집의 전체 면적이 작으므로 ㄱㄴ자의 연결부위의 빈 공간에 벽체를 세워 창고 방으로 전환시킨다. 아예 뒷마루가 없었던 집은 보관과 실내 작업을 위해 광채를 크게 신축하기도 한다.

(9) 현대에서의 변화

현재 보통 내부공간화, 위생설비시설 현대화, 주방의 입식화, 외부와 내부의 명확한 구분 등이 발생한다.

오래된 집일수록 대청마루의 앞은 외기에 열려 있으나 일정 때 어느 시점 후부터 앞에 유리문으로 여닫게 막아놓았다. 근래 대청마루 끝에 알루미늄 새시 문을 달거나 벽돌로 벽을 쌓아 거른방까지 연결하여 완전 내부로 만들기도 한다.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는 대청마루는 사용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던 것이 실내 활동 공간의 반경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또 하나는 난방이 아궁이 구들 방식에서 보일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료의 절약을 위해 새시 창을 달게 되었고, 간이식으로 투명비닐을 그 자리에 씌워 보온을 꾀하는 집도 있다. 보일러실이 옥외 또는 헛간에 지어졌다. 또 과거 "번소는 멀수록 좋다"는 설계원리가 편의성에 밀려서 대문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인분이 더 이상 농사용 비료

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난방과 취사의 분리에 의해 대부분의 부엌이 개조되었다. 구들 아궁이 때문에 마당에서 바닥이 밑으로 내려갔던 데에 비해 방, 마루와 같은 면에 부엌이 입식 싱크대로 개조되었다. 마루도 거실화하여 식탁과 소파를 놓은 집도 있었다.

대부분 초가지붕이었던 지붕이 새마을 운동 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 기와로 바뀌었다. 건축가는 초가지집의 향수를 느끼는 데에 비해, 거주자들은 계속 살아주어야 하는 초가의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량지붕에 만족하고 있다.

사랑방 뒷마루를 없애 방을 확장함으로써 가회동 도시한옥처럼 밖으로부터 완전 차단되는 주거로 전환되었다. 바깥마당도 농사 수확을 이제는 전부 기계로 함으로써 탈곡 작업이 불필요해졌고, 또 인심이 각박해져서 더 이상 바깥마당은 중요물건을 내놓아도 되는 사적 공간이 되지 못한다. 그 대신 바깥마당은 안성맞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구한 역사로 내려온 전통주거가 현대 상황에 맞지않음에 따라 폐기하거나 임의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대응 해결책의 제시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4. 해석과 논의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고양 주거의 거주자의 생활과 공간형태와의 연관된 특성을 해석하고 논의한다.

거주자의 집의 공간인식은 안채 우선이다. ㄴ자채의 사랑방, 대문간, 허수간, 광, 아랫방으로 이루어진 채는 2차 부가적 공간이다. 안채 기준으로 볼 때 부엌이 돌출한 ㄱ자 경기형(정인국) 또는 굽은자형(김홍식), 중부형(조성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배치 형태는 공통적으로 ㄱ자 안채와 ㄴ자의 사랑채(문간채, 행랑채)를 어긋나게 배치하여 안마당을 만든다. 경상도 뜰집과 같이 안마당을 ㄱ자 채로 구성하는 것보다 계층상 최소 칸의 채로 조금 넓은 안마당을 형성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일반적 ㄱ자집은 ㄱ자 4채로 구성된 가장 개방적인에서 ㄱ자의 한쪽만 트인(ㄴ자)의 폐쇄된 유형이 있을수 있으나, 고양 주거의 안마당은 공통적으로

담과 셋대문으로 외부와 폐쇄된다. “터진” ㄱ자로 불릴 수 있으나 실제 생활상 반대로 “닫힌” 안마당인 셈이다. 뒤란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별도의 폐쇄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뒤란은 부엌에서 직접 출입하도록 하는 장독대, 우물, 터줏가리 민간신앙 행사 등의 은밀한 여성공간이 되며, 안마당의 남녀 혼합공간과는 분리된다. 같은 경기 남부지역의 일반적인 ㄱ자집에서 집 전체 울타리 내에서 안마당과 뒤란의 공간구분 없이 열려있는 배치와 차별되어, 더욱 여성화 된 폐쇄공간이 된다. “어긋난 ㄱ자”의 폐쇄 안마당형”이 보다 정확한 고양 집의 유형 명칭이다.

실제 면담시 안마당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답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텅 빈 공간이다. 그러나 돌출된 ㄱ자 끝의 부엌을 시발점으로 안사람의 일상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이 된다. 거른방 사랑방 불매기, 거른방 아궁이의 소죽 끓이기, 사랑방으로의 식사 공급, 베탕 찬광 관리, 농기구 보관 관리 등등. 돌출형 부엌은 ㄱ자형 안채(민가형)보다 안사람의 가사 활동에 작업 동선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유리한 배치이다.

사랑방은 뒷마루를 통하여 외부에서도 대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입할수 있도록 열려있다. 대문밖 마당은 오늘 기준으로 집밖의 마을공간이지만, 당시 중요 재산인 수확한 벼단을 그대로 야적하고, 타작 활동이 일어나고, 돼지우리, 닭장, 변소가 있었으므로 해서 사적공간 같은 공적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양 주거는 안마당을 중앙으로하여 가장 개방된 바깥마당에서부터 가장 폐쇄된 뒤란까지의 공간의 단계가 명확히 구분된 특성을 갖는다.

농사수확과 연관된 외부 바깥마당이 논에서 말려 온 벼를 벗가리로 보관하고 타작 작업하는 마당이 되고, 탈곡된 벼는 허수간(외지간)에 섬가마니의 형태로 쌓거나 또는 한 칸 전체가 뒤주로 된 뒤주칸에 넣어 보관하고, 수시로 동네 정미소에서 쌀로 쫄여 와서 일상 식량으로 부엌 또는 근접 공간에 큰 독으로 보관하고, 대청마루 뒤주에 보관하는 것은 형편이 낡은 집이다. 현미 만들기의 정미작업이 마루에서 행해졌다.

일상 식사와 관련된 부엌에 인접하여 장독, 김치광, 찬간의 긴밀한 공간 연결이 되고 연료로서 나뭇간 공간이 부엌에 부속되어있어서 작업공간으

참고문헌

로서의 부엌은 비교적 큰 편이다.

다음으로 형태 유형과 유교 양반문화와의 관련성을 보도록 한다. 유교문화는 조상숭배로서 대청사당에 위패를 모시고 있으나 4대봉사는 약화되어 있다. 양반 대갓집처럼 안채 사랑채의 유교적 남녀유별 공간구분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은 약화되어 있다. 안방은 여성공간이라기 보다 주인 부부방 또는 식구수가 많음에 따라 자녀들 거주 공간이 되고 거른방에 배분되고 그래도 모자라면 행랑채에 틀어갓방을 구성한다.

특히 사랑방은 명칭은 있으나, 남자 주인거주 공간으로라기보다 할아버지 낮동안 기거공간, 동네 노인 모임방, 외부 나그네 재워주는 곳 등의 집의 외향적 접객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랑방이 있는 채도 사랑채라는 명칭보다 문간채, 행랑채, 바깥채로 불려서 남녀구분의 성격이 약화되고 실질생활이 우선한다.

안방은 임종을 맞이하는 것처럼 상징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가족 공동식사를 하는 중심공간의 지위를 갖는다. 마루는 원래는 봉당으로 불리는 흙바닥으로 되어있었으나 점차 목재마루화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기둥, 성주, 사당의 중요 공간이었다.

대상 주거는 최고 150년부터 대체로 일제시 건립되었는데 배치형식은 서울 양반집의 형태도입으로 볼 수 있는 안채-사랑채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고양 주거는 사랑채 안채의 남녀는 성별구분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방들 또한 식구의 숫자와 실용적 편의에 의해 점유되는 기능미분화의 성격을 갖는다. 과거 동 시대 양반집은 유교적 남녀분리가 엄격하였으나 고양 전통주거는 실질생활이 유교질서 보다 우선한다. 즉 이입된 형태는 겉질의 형식만 남고 생활은 독자적으로 형성된다. 그럼에도 폐쇄된 여성 전용 뒤란이라는 여성성은 남는다. 노비 또는 머슴의 노동을 전제로 한 99칸 유교 양반집의 분산배치가 농업생산 작업을 기반으로 한 중농 이하 계층의 초가집 주거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축소 밀집된 형태가 고양 전통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기초자료는 「고양시 민속대관」 “주생활편” 2002 작성이 바탕이 되었음.)

Spradley, James. *Participant Observation*. 1979
 _____ . *Ethnographic Interview*. 1980
 Bill Hillier & Julienne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1984
 고양시문화원, 「고양시 민속대관」 2002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1권 전통민가편, 2003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8
 김기주,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 형식에 미친 가례의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1994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대한건축학회 편, 「주거론」 1996
 정연상, 이상해. “경기 전통민가의 안채의 형태와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4
 정연상, 이상해. “경기도 전통민가의 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6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I 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6./ 1991.12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1974
 임미정, 이희봉. “거주자 생활중심으로 본 경기 전통민가 연구” 「대한건축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2002
 한지만, 이상해. “경기도 지역 민가의 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9
 홍승재,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제적 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2

A Study on the "Closed ㄱ ㄴ Type" of Traditional Folk Housing in Goyang, Gyonggi-do, Focused to Dweller's Life.

Lee, Hee-Bong

(Faculty of Architectu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rough a field study of the folk houses, "Closed ㄱ ㄴ Type" in Goyang-si, Gyonggi-do, focused on the dweller's life by the method of ethnographic interview, observation, and physical survey. L and opposite L type of inner and outer buildings form a closed inner court, and innermost backyard for woman is enclosed by fence.

Form and space of the house contains dweller's traditional life. Outer space of a front gate becomes semiprivate space, for thrashing and piling up harvest and raising vegetables and pigs. Confucius principle does not fully dominate dweller's life of ancestral rite at Daechong floor, and separation of man's and woman's quarter. Superstitious worship activities took place for lord of site and house. In everyday life, Anbang, inner main room, is assigned for parent's quarter instead of woman's quarter, and Geornbang, next room, was for son's family. Anbang has symbolic meaning for a place of deathbed. House contains agricultural activities, crop harvesting, thrashing, putting into storage, hulling rice, and keeping grain near kitchen. At present, rooms are needed more; sheds are made into rooms, rooms are enlarged toward outside, half outside space like Daechong floor becomes interior space by sash screen. And modern facilities of kitchen and bathroom are equipped for convenience.

At the end, meaning and generative principle of those forms are discovered.

Keywords : Traditional Folk Housing, Closed ㄱ ㄴ Type, Dweller's Life, Field Study, Ethnographic Interview.
